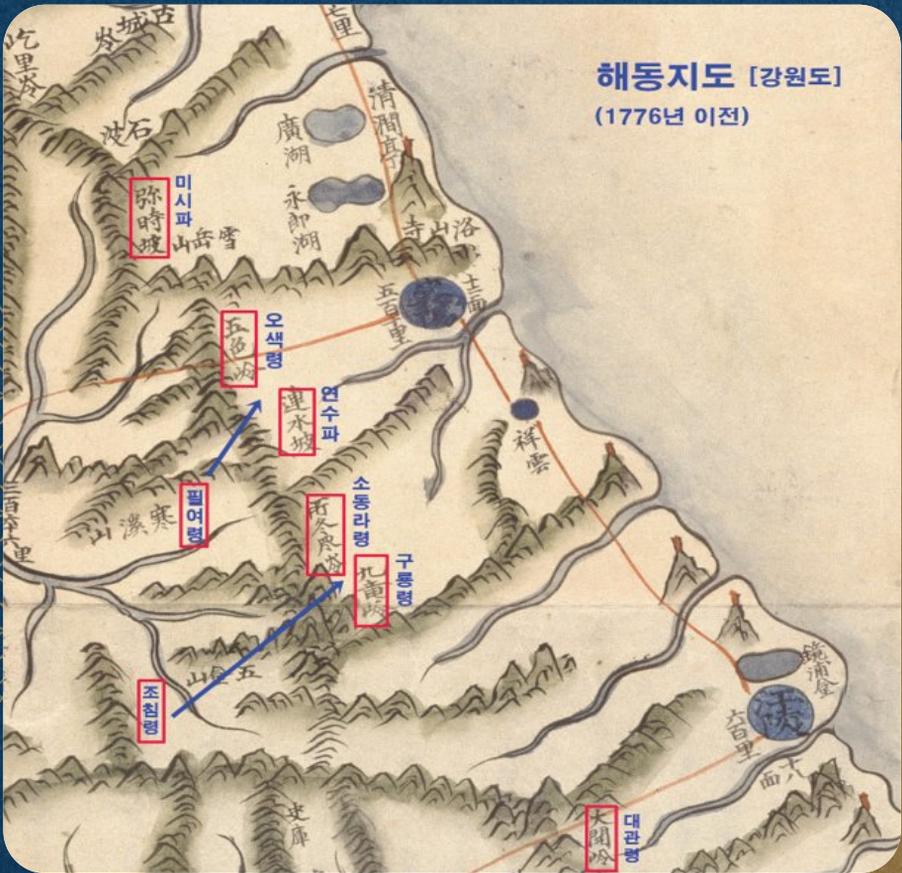


양양에서 영서를 잇는

# 백두대간의 영(嶺)



양양문화원







양양에서 영서를 잇는

# 백두대간의 영(嶺)





# 양양10경

1경



## 남대천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은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아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본능의 강이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2경



##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3경



##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솔령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러 졌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운집한다.

4경



## 주전골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5경



## 하조대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벽위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앞 바위에 하조대 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6경



## 죽도정

죽도정은『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동근 돌이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7경



## 남애항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1층 국가어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아산(陽也山)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어판장에는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어촌 체험 항이다.

8경



##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월 당 김시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9경



##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출토된 신석기 유물과 오산리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이 전시, 재현되어 있다. 불 피운 자리가 발견된 움집터에 직접 들어가 보는 움집 체험과 깨진 빗살무늬토기, 움집을 복원하는 퍼즐 체험 등 특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마치 선사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10경



## 양양서핑로드

현북면~현남면 바다 일원에서는 어디에서나 검은 슈트를 입은 서퍼들이 점점 바다를 유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심이 얕아 초심자들이 서핑을 시작하기 적합해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며 서핑의 성지라 불린다. 이 구역을 양양 서핑로드라 지명하여 10경으로 선정하였다.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서쪽 영로 -----	6
1. 오색령 (五色嶺) -----	9
2. 필여령 (弼如嶺) -----	31
3. 단목령 (檀木嶺) -----	51
4. 소동라령 (所冬羅嶺) -----	65
5. 조침령 (鳥寢嶺) -----	83
6. 구룡령 (九龍嶺) -----	97



##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서쪽 영로(嶺路)



###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서쪽 영로에 들어가면서

과거 양양부(襄陽府)에서 백두대간을 넘어 서쪽으로 통하는 영로는 총 6개가 있었다. 그러나 이글의 성격상 6개 영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는 자료로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여 설명을 부가한다.

우선 영의 순서를 오색령에서 구룡령까지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며 양양부에서 출발하면 인근 고을 어느 곳에 이르는지를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인제현으로 가는 영로는 오색령(五色嶺)과 필례령(必曳嶺)이 있고, 연수파(連水坡)와 조침령(鳥寢嶺),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춘천부 기린현으로 가고, 구룡령(九龍嶺)은 강릉부로 가는 영로였다.

여기에서 인제현은 지금의 인제군청 방향을 말하며, 춘천부 기린현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가 되었고, 구룡령 넘어 강릉부는 흥천군 내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최근 오색령(한계령)을 두고 인제군에서 소동라령과 같은 영이었다고 잘못 해석함으로써 산악인들에 의해서 인터넷상에 마치 정설처럼 여겨 잘못된 내용을 퍼 나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보면 다음과 같다.

양양부에서 서쪽으로 통하는 영로(嶺路)는 6개였지만 이 중에서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역을 매개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한 역로(驛路)는 소동라령이었다. 오색역(五色驛)이란 이름 때문에 오색령이 역로로 활용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색령의 돌산을 뚫고 우마차가 통과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이후부터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제45 간성군 산천(山川)조에 ‘미시파령(지금의 미시령)은 고을 서남쪽 80리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1493년(성종 24)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역원(驛院)조에는 ‘원암역(元岩驛) 옛터가 있는데, 고을 서남쪽 63리에 있었다. 미시파령(彌時坡嶺)의 길이 열리면서 오색역(五色驛)을 철거하여 여기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결국 1493년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역로(驛路)로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미시파령(彌時坡嶺)이 열렸고, 소동라령의 역로(驛路)를 유지 보수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오색역(五色驛)도 폐지되어 새로운 역로를 따라 간성지역으로 옮겨갔으며 원암역(元岩驛)에서 이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인제에서 주장하는 오색령이 소동라령이라는 억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오류임을 확실하게 밝혀두는 바이니 바르게 이해하기 바란다.

6개의 큰 영들이 지금은 백두대간(白頭大幹)을 종주(縱走)하는 대간(大幹)길로 이용되며 총 35구간 중 31구간은 구룡령에서 조침령까지 24km이고, 32구간은 조침령에서 오색령(한계령)까지 25km이다. 총 42구간으로 나누면 각각 37구간과 38구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조침령과 구룡령에서는 자전거 힐클라이밍 경기가 종종 개최되어서 과거와는 다른 기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6개의 큰 영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영을 넘어야 하는데 작은 영으로는 향현(香峴/향재:상평고개), 소량치(所良峙:서늘재), 한령(寒嶺:빨딱고개), 형제현(兄弟峴), 망령(望嶺)고개, 작은양아치(小兩峨峙), 큰양아치(大兩峨峙) 고개가 있다.

이글에서 작은 영로는 위치만 확인하였을 뿐, 따로 큰 영들처럼 정리하지는 않았어도 필요에 따라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기에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줄로 안다.

큰 영로의 대부분은 확·포장되어 국도와 지방도로 이용이 되면서 과거의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단목령(연수파)과 북암령(소동라령)은 아직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조침령과 구룡령은 옛길은 남아있으나 새로운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추억 속의 영로가 되었다. 이중 단목령(연수파)은 1982년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987년부터 입산이 통제되었으며, 2011년 《양양향토사연구소》에서 탐방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북암령(소동라령)은 역로 의 기능을 잃은 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폐쇄상태 이기에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작은 영로도 소량치(서늘재)와 망령고개, 형제현을 빼고는 모두 포장되어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로 모두는 별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웃 고을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의 시발(始發)로 양양부의 물자와 사람이 영서로 통행하면서 물물교환 내지는 상행위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소금과 해물이 주로 인제로 갔지만 멀리서 흥천, 원주, 양구, 춘천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오색령 2등 도로 개착 진정서”에서 확인하였다.

6개의 영로는 비슷하면서도 개별적인 특징과 사람 살아가는 맛과 멋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영을 읽어가면서 이들의 미묘한 차이와 우리 《양양학연구소》에서 전하려 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꼈으면 한다.

01



# 오색령 五色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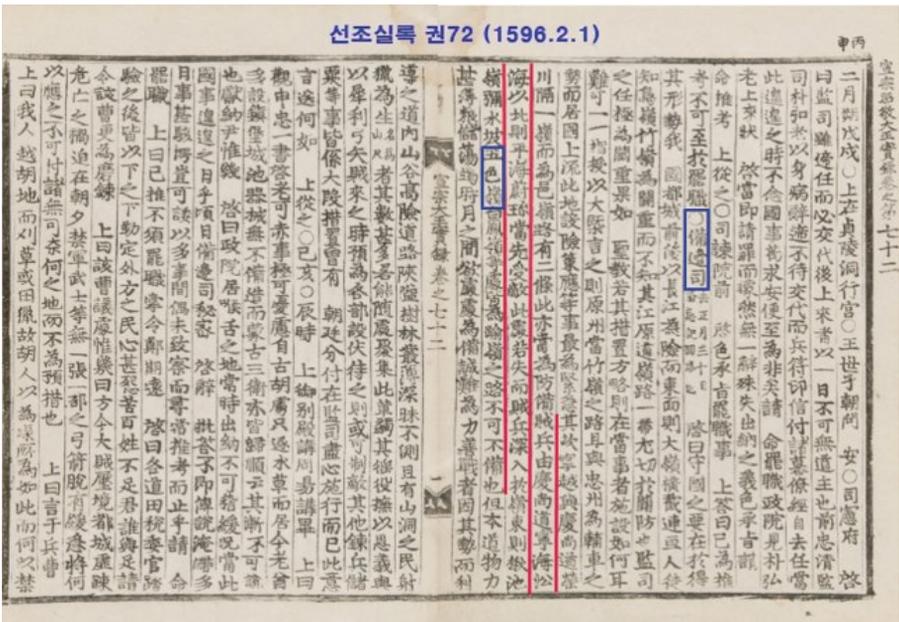
오색령로 전경

I 머리말

오색령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30번지이며, 해발 1,004m로 예전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 영로였다. 임진왜란 중인 선조 29년(1596) 2월 1일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이 영(嶺)을 넘을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오색령의 효시(嚆矢)이다.

조선 말기 지리학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의 고본(稿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여도(東輿圖)에서 오색령을 고대로(古大路)라 하였고, 그 외 각종 고지도(古地圖)와 고지지(古地誌)에 한결같이 기록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는 도로 규칙을 제정하여 조선의 총독이 직접 관리하는 1·2등 도로와 도장관(지사)이 관리하는 3등 도로, 기타 부윤, 군수 등이 관리하는 등



〈그림 1〉 『선조실록』 권72 비변사(備邊司)에서 주청(奏請)한 오색령

외도로로 구분하였다.

오색령은 1913년 「관보」에 3등 도로로 고시되면서 공식적인 관리주체가 알려지게 되었다. 3등 도로로 지정된 것에 반발하여 1923년에 영서지역의 춘천·홍천·양구·인제 등 4개 군이 각각 군별(郡別)로 강원도에 2등 도로로의 승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영동에서도 강릉·삼척·울진군이 동참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었으나 2등 도로로의 승격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1915년에 조선 침탈을 목적으로 만든 1/50,000지도에는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오기(誤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9년에 전국의 지명을 재조사하면서 경계에 위치한 영에 대하여는 양쪽의 의견을 받아서 지명을 확인해야 함에도 시·군 단위로 행정구역 내에 포함된 지명을 해당 군 단독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한계령은 한계리를 근거로 인제군 조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양양군에서는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인제군 북면 한계삼거리부터 양양군 서면 오색리까지 이어지는 국군의 전술도로가 1966년 4월 1일 착공하여 1971년 11월 30일 완공되면서 이 과정에서 1971년 8월 31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 제44호선 양평~양양선으로 137.2km가 지정되어 한계령은 오색령을 대신하는 지명으로 확정 변경되었다.

이런 이유로 양양문화원은 2016년 9월에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오색령 정상에 기존에 설치한 소형 표지석을 제거하고 “백두대간 오색령”이라고 각자(刻字)한 대형 표지석으로 교체하였다.

## Ⅱ 오색령과 한계령의 관계

### 1. 설악산과 한계산

설악산(雪嶽山)은 강원도 양양군, 인제군, 속초시, 고성군에 걸쳐있는 산으로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대청봉(1,708m)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향로봉과 금강산



〈그림 2〉 오색령 정상의 표석

을, 남쪽으로는 점봉산과 오대산을 두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한라산(1,950m)과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 171호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970년 3월 24일 산 중심부 174km<sup>2</sup>가 국립공원 5호로 지정되었고, 1982년에 설악산 남쪽의 점봉산(1,424m)을 포함한 393km<sup>2</sup>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UNESCO)의 생물권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984년에는 공원이 오색, 점봉산까지 확대되어 현재의 공원면적은 398km<sup>2</sup>이다.

설악산은 예전에는 설산(雪山), 설봉산(雪峰山), 설악산(雪嶽山) 등의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주봉은 대청봉으로 행정구역상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22대 지증왕 때부터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설악산에서도 제례를 올렸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설악산이 한가위부터 내리는 눈이 하지(夏至)가 되어야 없어지는 산이라는 기록이 전하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암석이 눈처

럼 하얗기 때문에 설악이라 불려진다는 기록이 있다.

예전에는 대청봉이 있는 양양쪽 산을 설악산이라 하고, 귀때기청봉이 있는 인제쪽의 산은 한계산(寒溪山)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 2. 소슬령과 오색령(한계령)

지금 한계령의 옛 지명은 소슬령(所率嶺)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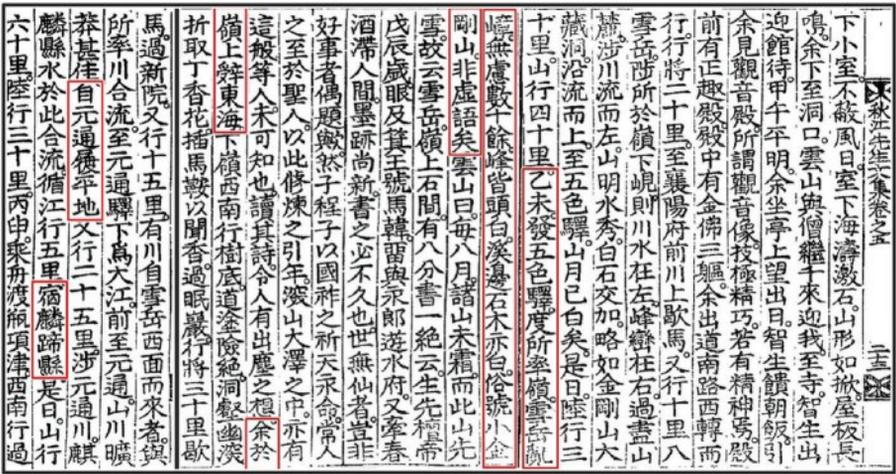


〈그림 3〉 『팔곡집』 권2 (한계산)

1589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 1531~1604년)의 『팔곡집(八谷集)』에 수록되어 있는 「한계산(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옛 절 한계사는 양양에서 소슬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이 한계사(寒溪寺: 장수대 인근의 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라는 글이 있다.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년)의 『추강집(秋江集)』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는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오르니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麟蹄縣)에서 묵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양양에서 영을 넘어 한계사[장수대 부근]를 지나 인제를 통하는 지금의 한계령의 옛 이름은 소솔령(所率嶺)이었다.



〈그림 4〉 『추강집』 권지5 「유금강산기」

### 3. 소솔령이 오색령인 근거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 72(宣祖實錄 卷七十二) 1596년 2월 1일에 비변사(備邊司)가 선조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적병이 경상도 영해(寧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면 적병이 깊숙이 영동(嶺東)으로 침입하여 추지령(楸池嶺)·미수파(彌水坡·미시령)·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등을 차지하고 모

두가 영로(嶺路)를 넘게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토록 많은 문헌에서 언급되던 소솔령(所率嶺)이라는 고개명은 이때부터 모든 기록과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색령(五色嶺)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이는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비슷한 명칭의 고개 이름(소파령, 소솔령, 소어령, 소동라령 등)에서 벗어난 특별한 지명을 통해 위치를 쉽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수증(金壽增)의 『곡운집(谷雲集)』에 수록된 『한계산기(寒溪山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91년 5월 9일의 기문(記文)에 “한계사(寒溪寺) 옛터를 지나니 북쪽사면의 모든 산봉우리는 곧게 솟아 있고, 나무들이 무성하여(중략) 물가의 돌 위에서 점심을 들었다. 지나는 스님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오색령(五色嶺)을 지나서 양양(襄陽)으로 가는 길인데 대개 이곳에서 바닷가까지의 거리는 80리 정도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우리는 양양에서 영을 넘어 한계사 터를 지나 인제로 가는 영이 소솔령임을 기록을 통해 확인했었다. 그런데 지나가는 스님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니 오색령을 거쳐 양양으로 간다고 대답했다. 이로써 소솔령이 오색령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한계사지 전경

양와 이세구(養窩 李世龜)의 문집인 『양와집(養窩集)』에 1691년 10월 3일 기록한 「동유록(東遊錄)」이 있는데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고 그 동쪽은 양양(襄陽)이고 서쪽은 인제(麟蹄)이며 오색령 북쪽이 미시파령이다.”라고 적고 있다.

식산 이만부(息山 李滿敷)의 『식산집(息山集)』 「금강산총기」서두에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은 백두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백두산(白頭山)의 낙맥(落脈)이 남으로 흘러 철령에 이르며 남북의 경계를 이룬다. 이곳에서 동으로 굽이치면 추지령·쇄령·온정령 등 세 개의 큰 영(嶺)으로 팔백리를 왕래하며, 온정령 남쪽 삼십리에 금강산이 있다.

금강산에서 동해를 따라 백리를 내려가면 진보령(진부령)이다. 진보령에서 오십리를 더 가면 석파령이고, 그곳에서 삼십리를 더 가면 미치령(미시령), 다시 육십리를 가면 한계산이고, 다시 삼십리를 가면 오색령에 이르며, 이곳에서 구십리를 가면 오대산에 이른다. 여기서 다시 삼십리를 가면 대관령이고, 사십리를 더 가면 백복령이고, 백리를 더 가면 태백산과 황지 연못이다. 이 영들은 대체로 위든 아래든 지세나 풍경이 빼어나지만 좁고 험준한 모습이다.”라고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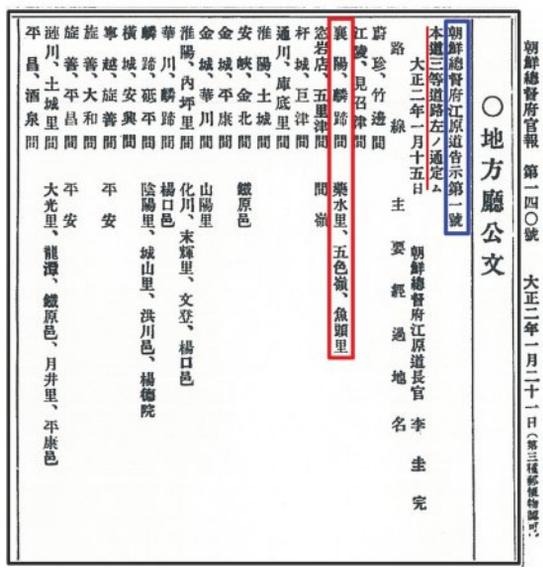
이를 입증하듯이 앞에서 본 고지도들에서도 소솔령과 오색령이 함께 표기된 지도는 없다. 모든 고지도에서 소솔령이 사라지고 오색령이 나타나고 있다. 한계사에 투숙객이 많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절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이용객이 많았던 소솔령이란 지명이 모든 지도에서 사라지면서, 필여령의 북쪽 영으로 모든 지도와 문헌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오색령이 과거의 소솔령임이 분명하다. 오색령은 소동라령이 없어진 후 당시에도 양양과 인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영로로 지금의 한계령(옛 오색령)임을 알 수 있다.

### Ⅲ 일제강점기 오색령

#### 1. 일제강점기의 오색령에 대한 표현

일제강점기에도 행정 내적으로는 오색령이란 지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140호(1913. 1. 21)에 “강원도의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하다. 양양~인제 간(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이라고 고시 하면서 오색령(五色嶺)을 공식 지명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림 6〉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1호 관보

가. 오색령 2등 도로 개착을 위한 노력의 개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每日申報, 1922. 12. 6.)에 의하면 양양군에서는 오색령 도로를 2등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색령 통과 기성동맹규약(五色嶺 通過 期成同盟 規約)”을 만들어 3개년에 걸쳐 완성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중 15만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목표를 세우고 규약을 만들었다.

이 규약에 따라 1922년 12월 6일부터 양양 오색령로를 2등 도로로 개착(開鑿:산을 뚫거나 땅을 파서 길을 냄)해야 한다는 진정서(陳情書)를 영서에서는 춘천을 시작으로 흥천, 인제, 양구가 연쇄적으로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영동에서도 강릉, 삼척, 울진 등이 오색령 도로 개착(開鑿)을 찬성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당시 강원도로부터 오색령 도로 직로(直路)를 위한 답사 하명(下命)이 있자 1931년 11월 8일 양양군수 박재수(朴在洙)는 군내 관민유지(官民有志) 45명을 대동하고 조침령(鳥

砮嶺)을 통해 인제군 현리를 경유(經由)하여 인제군청을 방문 인제군수 김극일(金極一)과 원만한 협정을 마친 후 오색령 도로를 시찰하고 11월 14일 귀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32년 3월 15일에는 인제군 북면 주민 800여 명이 연서로 날인하여 인제읍에서 기린을 거쳐 양양으로 관통하는 도로는 불가하니,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五色嶺)을 관통케 해달라고 인제군청과 강원도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고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2등 도로로 고시된 경성(京城)~오리진선(五里津線)이 경성(京城)~간성선(杆城線)으로 변경된 후 우리군과 주변 7개 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오색령 직통노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38년 12월 1일 「조선도로령」에 의해 춘천~간성선이 65번 국도가 되면서 양양~인제 간은 국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양양 4개면(양양, 서, 손양, 강현)은 연합으로 오색령 도로를 수선(修繕)하여 탐승객(探勝客)의 불편을 조금도 없게 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매일신보(1938. 12. 6.)에 전해온다. 결국 양양군민의 16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부역(負役)을 통해서 자력으로 당장 도로 수선을 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오색령 통과 기성동맹 조직

1922년 12월 6일 양양군민은 모든 면의 대표가 참여하여 “양양 오색령 통행 기성동맹 규약”을 만들고 회원 50명이 참여하는 “오색령 이등도로 개착 기성동맹회”를 조직하였다. 오색령이 2등 도로로 승격하면 매년 5만원씩 3개년간 총 15만원을 공사비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당국에 청원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 ■ 襄陽 五色嶺 通過 期成同盟規約(양양 오색령 통과 기성동맹규약 1922. 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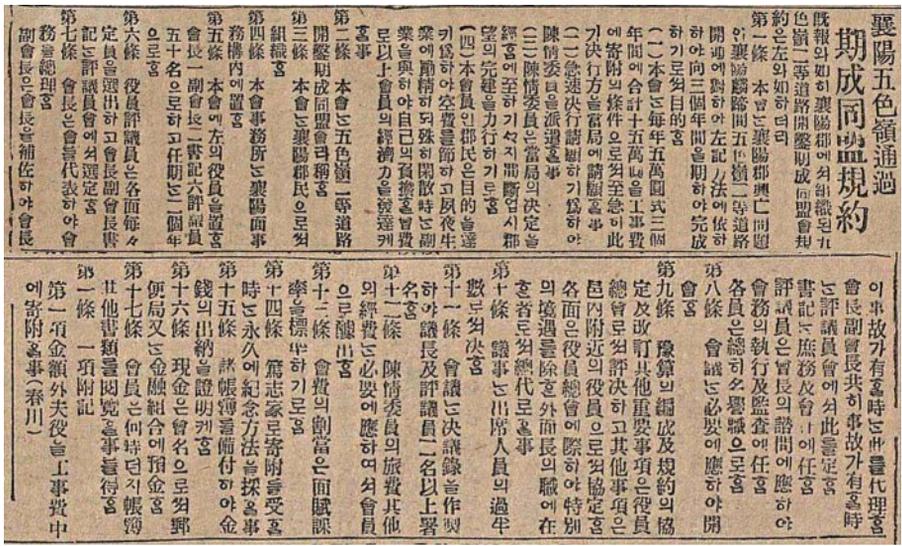
既報와 如히 襄陽郡에서 組織된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 期成同盟會規約은 左와 如하더라

第1條 本會는 襄陽郡 興亡問題인 襄陽麟蹄間 五色嶺 二等道路 開通에 對하야 左記 方法에 依하야 向三個年 間을 期하야 完成하기로써 目的함.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양양군에서 조직된 오색령 2등 도로 개착을 위한 기성동맹회 규약은 좌측의 표기와 같다.

제1조 본회는 양양군 흥망의 문제인 양양~인제 간 오색령 2등 도로 개통에 대하여 좌 측에 기록된 방법에 따라 향후 3개년간에 완성하기로 목적을 하였다.

- (1) 본회는 每年五萬圓式 三個年間に 合計 十五萬圓을 工事費에 寄附의 조건으로서 至急하여 此기 決行方을 當局에 請願할 事.
- (2) 急速決行請願하기 爲하야 陳情委員을 派遣할 事.
- (3) 陳情委員은 當局의 決定을 經함에 至하기까지 間斷없이 郡望의 完建을 力行하기로 함.
- (4) 本會員인 郡民은 目的을 達기 爲하야 空費를 節하고 夙夜生業에 厲精하되 殊히 閑散時는 副業을 與하야 自己의 負擔한 會費로 以上會員의 經濟力을 發達케 할 事.副業을 與하야 自己의 負擔한 會費로 以上會員의 經濟力을 發達케 할 事..... 이하 생략
- (1) 본회는 매우 급박하여 매년 5만원씩 3개년간 총 15만원을 공사비로 기부하는 조건을 이번에 결행한 방법으로 당국에 청원한다.
- (2) 급속히 결행하고 청원하기 위하여 진정 위원을 파견한다.



〈그림 7〉 1922년 12월 6일 매일신보 기사

- (3) 진정 위원은 당국의 결정이 목적에 이르기까지 중단없이 군민의 바람대로 건설이 완료되도록 전력을 다해 행한다.
- (4) 본 회원인 군민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고 밤낮으로 성성으로 매진하되 특히, 한가할 때는 부업을 하여 자기가 부담한 회비가 회원의 평균 이상 금액이 되어 경제력을 발달케 한다. .... 이하 생략

#### 다. 2등도로 개착을 위한 노력

- 明年度 豫算에 編入을 企待 襄陽郡民의 渴望하든 五色嶺道路 踏査 道에서 實地로 踏査키를 通達(명년도 예산에 편입을 기대 양양군민이 갈망하든 오색령도로 답사 도에서 실지로 답사키로 통달 1931. 11. 21)

[襄陽] 襄陽郡民으로 하야금 十有 餘年으로두고 熱望하던 西路 開鑿 問題는 지금으로부터 襄陽麟蹄 兩郡社會에 好 消息을 傳하게 되었다. 本 道 當局으로부터 該 直路 踏査의 下命이 있음으로 襄陽郡守 朴在洙 氏는 지난 十一月 八日 清水道技手와 當地官民有志 四五名을 帶同하고 西路인 鳥砮嶺을 越去하야 麟蹄郡 縣里를 經由하고 그곳서 麟蹄郡 庶務主任을 相逢하야 모든 山水와 道路狀況을 聽取하고 同郡廳 所在地까지 踏査하고 該 郡 郡守 金極一氏와 圓滿한 協定을 마친 후 五色嶺 道路 鬱密한 良材良木을 視察하고 同 十四日 歸廳하였다. 郡民一般은 明年度 道豫算中에 編入해 주기를 渴望하는 중이다.

양양군민이 10여 년을 열망하던 서쪽 도로 개착 문제는 지금 양양과 인제 양군 사회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강원도에서 오색령 직로 답사의 하명이 있어 양양군수 박재수씨는 지난 11월 8일 시스미(清水) 도청 기원과 양양군 관민유지 45명을 대동하고 서쪽 영로인 조침령을 넘어 인제군 현리를 경유하여 그곳에서 인제군 서무 주임을 만나 산수와 도로 상황을 청취하고 인제군청 소재지까지 가서 인제군수 김극일씨와 원만한 협정을 마친 후 오색령 도로의 울창하고 뾰족한 좋은 목재를 시찰하고 14일에 귀청하였다. 군민 모두는 내년도 강원도 예산에 편입해 주기를 갈망하는 중이다.

- 麟襄線 道路 問題로 洞民 當局에 陳情 五色嶺으로 고쳐달라고 800名 洞民 連署로 (인·양산도로 문제로 동민 당국에 진정 오색령으로 고쳐 달라고 800명 동민 연서로, 동아일보 1932. 3. 15)

강원도 인제 양양 간 도로는 총경비 20만원의 예산으로 벌써 설계해 놓고 아직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던바 금년도 인제지방은 대홍작으로 말미암아 수만 이재민이 아사선상에서 헤매는 현상이므로 군 당국에서는 각 면에 구제회를 조직하고 각 방면으로 맹렬히 활동함은 물론 이거니와 궁민(窮民) 구제책으로 인제 양양 간 도로공사에 착수하기를 도에 신청하여 불원간(不遠間) 착수하게 되었다는데 현재 설계한 것은 인제읍에서 기린을 거쳐 양양으로 관통하게 되었다 한다.

8백여 명은 연서 날인하여 전기(전에 설계된 기린 노선)의 예산은 불가하니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五色嶺)을 관통케 해달라고 군 당국과 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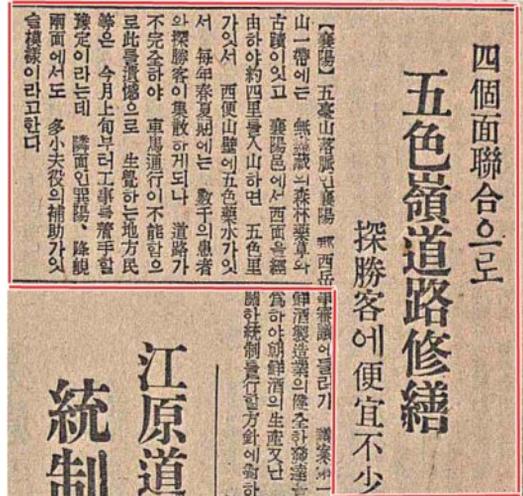
- 四個面 聯合으로 五色嶺 道路 修繕 探勝客에 便宜不少(4개면 연합으로 오색령도로 수선 탐승객에 편의 불소 1938. 12. 6)

[襄陽] 五臺山 落脈인 襄陽郡 西岳山 一帶에는 無盡藏의 森林 藥草와 古蹟이 있고 襄陽邑에서 西面을 經由하여 約 四里를 入山하면 五色里가 있어 西便山壁에 五色藥水가 있어서 每年 春夏期에는 數千의 患者와 探勝客이 集散하게되나 道路가 不完全하여 車馬通行이 不能함으로 此를 遺憾으로 生覺하는 地方民 等은 今月 上旬부터 工事を 着手할 豫定이라는데 隣面인 巽陽, 降峴 兩面에서도 多小夫役의 補助가 있을 模樣이라고 한다.



〈그림 8〉 1932년 3월 15일 기사

오대산 낙맥인 양양군 서쪽의 설악산 일대는 무진장의 산림과 약초, 고적이 있다. 양양읍에서 서면을 경유하여 약 4리를 입산하면 오색리가 있고 서쪽 편 산 벽에 오색약수가 있어 매년 봄과 여름에 수천의 환자와 탐승객이 방문하게 되나 도로가 불완전하여 차마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던 지방민 등은 금월 상순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인근 인 손양면, 강현면에서도 다소의 부역 보조가 있을 모양이라고 한다.



〈그림 9〉 1938년 12월 6일 매일신보 기사

## 2. 해방 이후 오색령(한계령)의 변화

조선시대에는 인마(人馬)만 다니던 오색령이 일제 말기에야 우마차가 겨우 갈 수 있는 도로였다. 반면에 백두대간 중 최고 낮은 529m의 진부령(陳富嶺)이 1938년 『조선도로령』에 의거하여 65호선 국도가 되면서 영북지역의 영동과 영서를 잇는 단선 국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 가. 국군에 의한 오색령(한계령) 전술도로 공사

6. 25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다가 인제군 북면 한계 삼거리에서 양양군 서면 오색리를 잇는 전술도로(戰術道路)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육군 제3군단 1102야전 공병단(제797부대) 제125 공병대대가 1966년 4월 1일에 착공하여 1971년 11월 30일 2차선 비포장도로를 완공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공사 완공을 앞두고 1971년 8월 31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 제44호선



〈그림 10〉 오색령 개통식 현장에서 테이프를 커팅하는 모습

양평~양양선으로 137.2km가 지정되었다.

영의 정상에서 오색리 방향으로 400m를 내려오면 동해안 쪽으로 갖길에 “공병 125 대대”라고 쓴 비석이 있는데 당시 수고한 공병대의 기념비이다.



〈그림 11〉 제125 야전공병대대 개척자 기념비와 오색령 전술도로공사 희생자 위령비

공사 당시 외설악 방향에서는 1중대장 ‘정하기’ 대위가, 내설악 방향에서는 2중대장 ‘반웅식’ 대위가 지휘하여 정상을 향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기념비 위치인 이곳에서 만

났다한다.

그 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開拓(개척)의 完結點(완결점) 개척정신은 / 깊고 험한 설악에 도전하여 / 동서를 잇는  
데 / 승리하였노라 / 육개 성상의 대역사는 / 오늘 여기서 완결되나니 / 자연의 신비를  
여기에 / 우리의 개척정신을 / 영원히 기념하노라 / 최후의 연결점에서 /

1971. 11. 30. 제125 야전공병대대 개척자들

영을 지나는 탐방객의 휴식공간인 설악루(雪嶽樓)는 한계령 휴게소 위쪽 대청봉을 향하는 길옆에 1971년 개통식에 맞추어 준공하였으며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 한다. 그 후 1972년 2월에는 도로를 개설하다 숨진 장병 7위에 대한 위령비(慰靈碑)를 정자 뒤편에 세우고 정자로 오르는 길을 108계단으로 고쳐서 추모의 정을 더 하였다. 위령비(慰靈碑)에 있는 고인의 명단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본다.

#### ■ 위령비 고인 명단

소위 김춘부, 소위 백상호, 중사 이병훈, 병장 장완익, 병장 최영해, 일병 이운희, 일병 조경철,



〈그림 12〉 오색령 정상 전경

오색령(한계령) 정상 920m에는 검은색 외관으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한계령휴게소”가 세워져 있는데 통행인 대부분은 차를 멈추고 동해쪽을 바라보며 오색의 장관에 빠지게 된다.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인 김수근씨가 설계하였는데 1979년에 시작하여 1982년에 준공하였다. 이 건물은 한국건축가협회에 의해 ‘거대한 자연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 속에 부드럽게 안겨 있는 실용적 건물’로 평가되어 올해의 건축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다.

#### 나. 오색령(한계령) 확 · 포장공사

1979년 9월에는 총 경비 1백65억원의 금액으로 오색령 확 · 포장공사를 민간 기업이 착공하여 도로 폭을 기존의 6m에서 9m로 넓히고 73.5km를 포장함으로써 서울에서 양양 간 운행 시간을 종전 5시간 30분에서 4시간 30분으로 단축하여 오색은 물론 설악권의 관광 수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3년여의 공사 끝에 1981년 8월 19일 준공식에는 남덕우(南惠祐, 1924년 4월 22일 ~ 2013년 5월 18일) 국무총리와 강릉 출신 김주남(金周南, 1931년 4월 8일 ~ 2009년 5월 21일) 건설부 장관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다. 오색령(한계령) 집중호우 복구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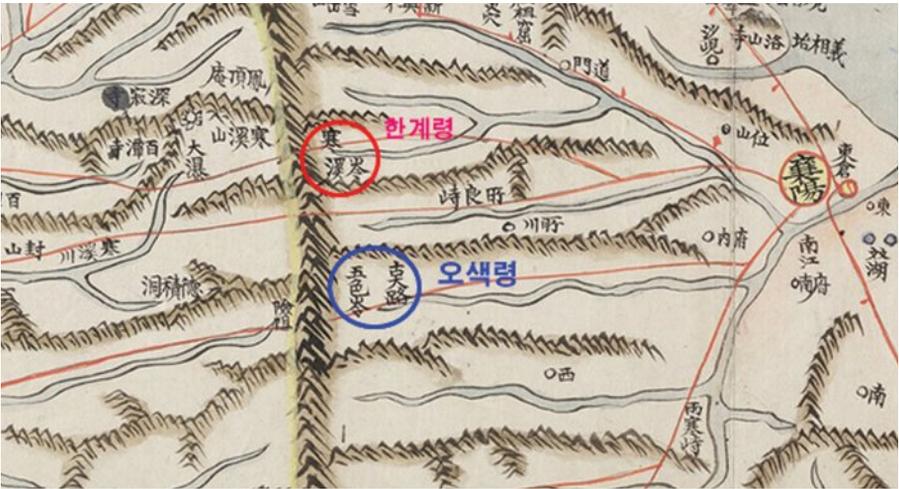
2006년 7월 15일과 16일에는 태풍 에위니아(EWINIAR)가 몰고 온 막대한 수증기가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우 구름을 형성했으며 2시간 동안 시간당 최대 50~100mm에 달하는 게릴라성 폭우가 되어 강원권과 중부권을 강타했다. 호우 피해가 집중된 설악산 남부 일대인 원통~한계령~양양으로 이어지는 44번 국도의 한계리와 오색리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특히 한계령을 관통하는 44번 국도는 곳곳에 도로와 다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옛 가락처럼 휘어진 가드레일이 수백 미터로 이어졌으며 100톤이 넘는 바위들이 망가진 도로 위에 내려앉았다. 동서에 걸친 한계령길 25km 중 100여 곳 이상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유실되는 큰 피해를 남겼다.

그 후 총 1,287억원을 투입한 결과 유실 도로 76곳을 복원했으며 산사태와 집중호우로 붕괴된 비탈면 3,145개소와 교량 35개소, 배수관 130개, 암거 56개 등을 설치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1월 8일 오전 11시 한계령 휴게소에서 ‘수해복구 준공기념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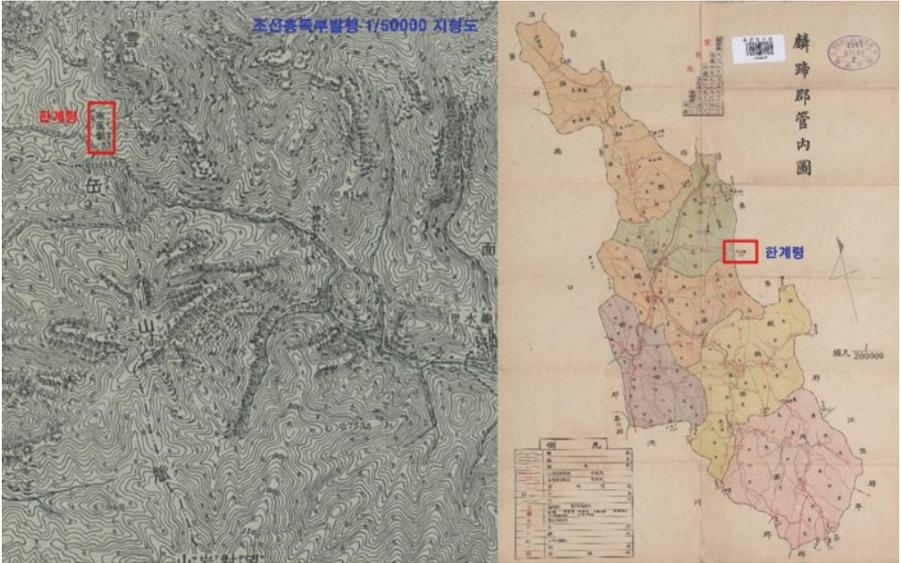
#### Ⅳ 양양 오색령 지명복원

조선 중기를 전후하여 소동라령(所冬羅嶺)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자, 오색령은 새로 개척한 영로로 분명히 소동라령과는 별개의 지명이다. 여지도(輿地圖, 1736~1767) 등에는 오색령과 소동라령은 전혀 다른 위치에 표기되어 있다.



〈그림 13〉 고대로(古大路)가 표기된 오색령과 한계령이 표기되어있는 동여도

북쪽의 오색령은 설악산의 주봉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소동라령은 오히려 구룡령에 인접하고 있어 두 영(嶺)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



〈그림 14〉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와 인제군세일반 관내도

오색령에 대해 조선 시대에는 확고한 문헌상 출처가 확보되어 재론의 여지가 없었으나, 1915년경 일제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만든 1/50,000의 지도에 오색령 대신한 계령을 오기(誤記)한 것을 광복 이후에도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는 양양군 주관으로 오색령 도로를 2등 도로로 만들기 위해 영서 4개 군(춘천, 홍천, 양구, 인제)의 협조하에 강원도청에 군(郡)별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영동의 강릉, 삼척, 울진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강원도로부터 도로 개착 승낙을 받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 2등 도로로의 승격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내의 7개 군이 양양을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시 오색령이 2등 도로가 되어 영이 열리면 인접한 군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얻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당시 홍천군의 진정서에는 “본 지방은 대 시장인 원주의 중계지가 되어 양쪽의 물자는 홍천을 경유케 되는데 속된 말로 홍천은 양양 물화의 전시장이라 한다. (중략) 일선(一線)은 오색령을 넘어야 인제군을 통과하는 바, 지금은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는 까닭

이지만 만일 차량이 통과된다면 통상(通商)이 활기차게 번창할 것이 극명하다.”고 오색령 개통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 당시 모든 도민은 “오색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인제군민 800명도 진정서에 오색령을 분명하게 명기하여 2등 도로로 개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별개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일제강점기에 오색령 명칭이 한계령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지명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하여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아서 후손들에 물려주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44호선 국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국도 노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색령은 한계령이 공식 명칭이 되면서 모든 교통 표지판이 한계령으로 표기되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남설악을 중심으로 양양군민의 41년 숙원인 “오색케이블카”가 2026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 “오색”이란 지명과 함께 “오색령”도 세상에 널리 알려져 옛 영광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오색령 삭도 조감도

## V 맺는말

지난 2010년에 양양군지(襄陽郡誌)를 발간하기 위해 군지발간위원회에서 각종 영로(嶺路)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조선 침탈의 목적으로 작전지도를 제작할 때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뒤편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영(嶺)의 기능은 귀향보다는 상경(上京)하는 데에 더욱 큰 의미를 두었다. 따라서 당시의 인제현과 양양부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제현에 속한 한계리는 귀향의 의미이고, 양양부에 속한 오색리는 상경의 의미로 영의 기능과 관련된 상경의 출발지는 오색리라고 할 수 있다고 오색령 관련 심포지엄 때 강릉원주대 김무림 교수가 밝혔다.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뒤편된 것은 일제의 잘못으로 인제군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알지만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이미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한계령이다’

일제강점기에 오색령 도로가 3등 도로로 발표가 되자 2등 도로로 승급하여 개착하기 위한 양양군의 노력을 보았다.

당시 영서의 4개 군(춘천, 홍천, 양구, 인제)에서도 오색령 도로의 개착이 자기 군의 물산(物産) 이동에 크게 도움이 되며 특히 동해안의 싱싱한 해산물 유입을 위하여 강원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끝내 2등 도로로의 승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색령이 제자리를 찾기를 위해 지난 2010년에 양양군 주관으로 오색령 관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양양문화원 관계자와 국토정보지리원을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한계령 지명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사무국장과 향토사연구원들이 옛 소동라령 도로를 현지 답사하여, 조선 성종 때 역로(驛路)가 폐쇄되어 미시령으로 옮겨 간 후 600여 년이 되어 감에도, 영로에는 당시에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의 형체와 영(嶺) 정상에는 인위적으로 쌓은 이정표인 돌무지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소동라령의 확실한 위치가 지금의 북암령과 일치함을 발표하였다. 이때 오색역은 원암역으로 이전하였음도 확인하였다.

소동라령은 지금의 북암령(北庵嶺)으로 오색령(한계령)에서 남쪽 방향으로 10km이상 떨어져 있으며 소동라령은 인제현(인제읍)으로 향하는 영이 아니고 춘천부 기린현(기린면 진동리)으로 향하는 영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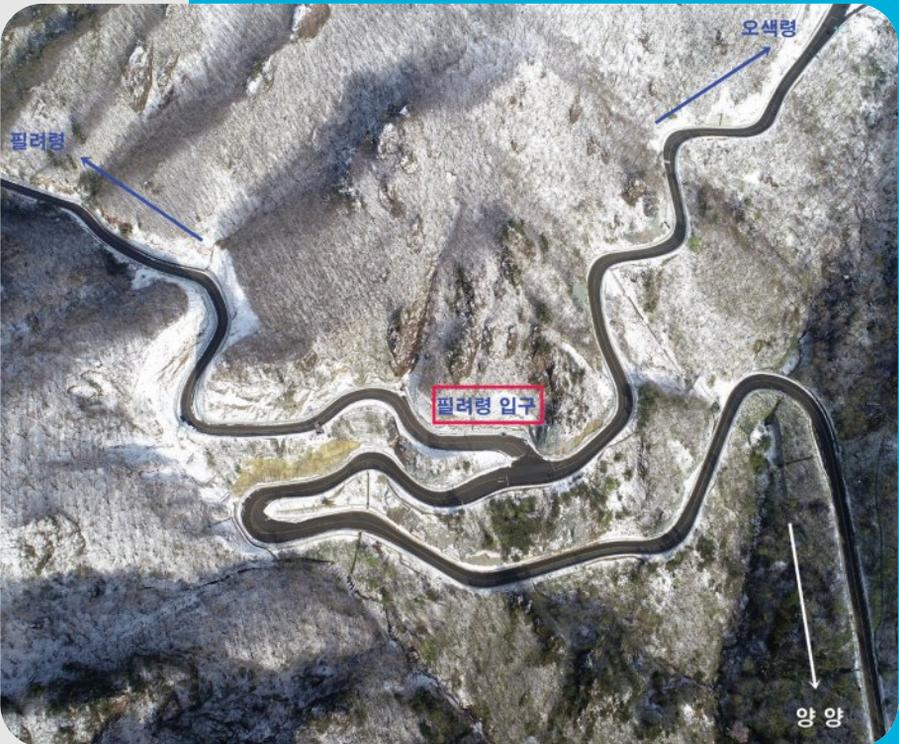
그리고 한국고전번역원법(200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고전번역원』이 『세종실록

지리지』 양양도호부편에서 ‘소등라령(所等羅嶺)’을 ‘바드라재’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소동라령(현 북암령)이 바드라재라는 것이지 오색령(한계령)이 바드라재로 번역된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02



# 필여령 弼如嶺



## I 머리말

필여령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를 잇는 영로(嶺路)이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 44번 국도 오색령 정상 근처인 필여령 입구에서 접속하는 왕복 2차로이다.

필여령(弼如嶺) 북쪽에는 소솔령(所率嶺)이 있었는데 소솔령은 오색령(五色嶺)의 옛 이름으로 지금은 한계령(寒溪嶺)이라 한다.

오색령과 필여령 정상은 불과 1km거리로 44번 국도를 이용한 상경(上京) 시에는 반드시 필여령 입구를 지나야 하는 단일로(單一路)로 고 문집이나 지도에서 오색령을 중심으로 필여령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어 오색령이 분명한 위치를 점해야 필여령의 위치도 분명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인용하는 문헌의 중첩을 피할 수 없었다.

다만, 고지도에서 오색령 남쪽으로 거의 같은 위선(緯線)에 서쪽으로는 한계산(寒溪山)이 표기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필여령 대신 연수파(連水坡)가 표기된 지도가 있는데 연수파(連水坡)는 박달령(朴達嶺) 즉 단목령(檀木嶺)이다.

양양부(襄陽府)에서 오색령의 거리에 대해 50리~70리까지 다양한 기록이 전하는데 지금의 도로를 실측하니 약 27km이다. 필여령까지는 26km이니 정확히 65리이다. 오색령을 차로(車路)로 만드느라 늘어난 거리를 감안(勘案)한다면 당시 거리는 약 50리(20km)에서 55리(22km) 거리가 적당할 것이다.

당시 오색령은 소동라영(所冬羅嶺)이 폐쇄되어 미시파령(彌時坡嶺)으로 옮겨간 이후 한양(漢陽) 500리로 향하는 비공식 영로(嶺路)로 사무로 가는 관원이나 양반들이 행차하는 길로 사용되었고 필여령은 보부상(裸負商)들이 소금과 어물을 지고 넘던 길로 그 성격이 사뭇 달랐다.

## II 필여령(弼如嶺)에 관한 고찰(考察)

### 1. 고문헌 속 필여령

고문헌 중에 필여령(弼如嶺)에 대하여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서인 『여지도서(輿地圖書)』와 양양부읍지(襄陽府邑誌)는 거의 동시대인 18세기 중반의 기록으로 내용도 비슷하다.

이중 여지도서가 좀 더 세밀하다.

고문서에 대부분은 필여령(弼如嶺)으로 나오지만 『관동지(關東誌 1829~1831)』, 『청구도(靑邱圖 1834)』,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 『동여도(東輿圖 19세기 철종(哲宗) 연간)』, 『청구요람(靑邱要覽 1895)』 등에는 필노령(弼奴嶺)으로 되어 있다.

또한 1834년도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를 보면 귀둔까지는 인제현 관할이었으나, 기린면 진동리는 당시 춘천부 관할 기린현(棋麟縣)에 속해 있었고, 구룡령 너머 홍천(洪川)과 평창(平昌)의 일부 지역은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필여령은 인제계(隣蹄界)로 나타난다.



〈그림 1〉 「조선팔도지도」의 필여령(弼如嶺)

#### 가.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년~1765년에 발간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양양 관애(關陔) 편에는 ‘오색령은 양양부 서쪽 50리에 있으며 설악 남쪽 가지에 접하고 인제와 경계를 이룬다. 필여령은

부 서쪽 40리 정도에 있으며 오색령 남쪽 가지와 접하고 춘천부 기린과 경계이다. 소동라령은 부서쪽 60리 정도에 있으며 필여령 남쪽 가지에 접해 있고 기린계로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생략) 형제 고개는 부 서쪽 40리 정도에서 오색령 길로 향할 때 있으며 두 고개가 마주하는 언덕으로 서로 닮았다 하여 이름하였다. 양한치 고개는 부 서쪽 20리에 있으며 구룡령을 향하는 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 “필여령을 춘천부 기린과 경계”라고 한 것은 단목령과의 혼돈(混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제와 경계라야 맞는 것이다.



〈그림 2〉 형제현 전경

■ 형제현(兄弟峴)

44번 국도의 온정2교 뒤편에 휴식공간에서 남쪽으로 보이는 두 봉우리로 첫 번째 봉우리는 만경대가 있는 봉우리고 또 하나는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 동남쪽 봉우리로 서로





〈그림 4〉 「청구요람」의 필노령(弼奴嶺)

라. 증보문헌비고 권28(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 양양 산천편(襄陽山川編)에는 ‘오색령은 양양부 서쪽 50리에 있는데 높아서 모든 산을 볼 수 있어 기록한다. 영로인 오색령은 현재 양양영로(襄陽嶺路)임을 알 수 있다. 필여령과 함께 서쪽 도로는 소동라령과 조침령이다. 구룡령은 강릉으로 가는 도로이다. 형제현과 양한치도 함께 서쪽 도로이다. 이제 영로(麟蹄嶺路)는 미시령과 흘이령, 탄둔령, 두모치, 건리치이고 오색령은 지금의 양양 영로로 서파령(지금의 미시령)과 함께 동로이다. 가노치는 남로, 진보령은 북로이다.’로 기록되어 있다.

## 2. 현대 지도에 표기한 영(嶺)의 순서



〈그림 5〉 영의 순서를 현대지도에 표기한 옛 양양부 서쪽 영로

## 3. 필여령 접근로의 변화(상행선 기준)

1917년(대정6)에 총독부에서 발행한 지도를 보면 양양군청에서 필여(必禮)령과 오색령까지 접근하는 길이 현재와는 사뭇 다르다. 특히 1915년(대정4)에 측도(測圖)하고 1917년에 제작을 완료하였으니 1915년 현재를 표기한 지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 대정4년측도 동6년제판(大正四年測圖同六年製版) 조선총독부 지도  
양양군청(郡廳) ⇒ 서문리(西門里) ⇒ 임천리(林泉里) ⇒ 향현(香峴) : 상평고

개) ⇒ 상촌리(上村里 : 상평리) ⇒ 장승리(長承里) ⇒ 흑간리(黑澗里 : 양양 철광) ⇒ 소량치(所良峙 : 서늘재) ⇒ 가라피리(加羅皮里) ⇒ 한령(寒嶺 : 빨딱고개) ⇒ 백암리(白岩里 : 현 오색1리) ⇒ 마산리(馬山里 : 현 오색1리) ⇒ 오색리(오색1리 관터) ⇒ 약수리(藥水里 : 현 오색2리) ⇒ 형제현(兄弟峴 : 만경대와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 사이에 위치) ⇒ 금표암(禁標岩) ⇒ 44번 국도 흘림골 입구 ⇒ 필례(必禮) ⇒ 오색령(五色嶺 : 현 한계령)

▶ 옥동집(玉洞集)에 향현(香峴), 한령(寒嶺), 형제령(兄弟嶺)이 기록.

- 향현(香峴)은 상평고개(上平峴)를 말함. 향재라고도 부름, 한령(寒嶺)은 빨딱 고개, 형제현(兄弟峴 : 상기 참조).
- 『옥동집(玉洞集)』 : 문익성(文益成, 1526(중종 21)~1584(선조 17)) 지음, 1873년 간행



〈그림 6〉 「양양읍지도」에는 소량치(所良峙)를 선을치(仙乙峙)로 표현

- ▶ 관동읍지(關東邑誌) 양양부(襄陽府) 도로(道路)편에 서늘재 기록
  - 관문에서 서쪽으로 량치(涼峙) : 서늘재)까지 20리, 양치에서 인제 방향 오색령까지 20리이다. 관문에서 서남쪽으로 서림리까지 30리, 서림에서 구룡령까지 40리, 구룡령에서 강릉 인암계까지 30리이다.
  
- ▶ 『여도비지(輿圖備志)』 권15, 양양도호부 영로(嶺路)조에 관아에서 서쪽으로 30리에 소량치(所良峙)가 있으며 오색령으로 통하는 도로이다.
  - ⇒ 량치(涼峙)는 한자 그대로 “서늘재”이나 소량치(所良峙)는 존재를 나타내는 허사(虛辭) 소(所)를 빼면, 량치(良峙)로 발음이 같고 방향도 같지만 거리에서 10리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당시의 거리 개념에 비추면 둘다 “서늘재”로 보인다.



〈그림 7〉 양양 서면 가라피 소량치(所良峙) 입구

■ 한계고성(寒溪古城)

오색령(한계령)에서 인제 방면의 옥녀탕 위쪽에는 신라말 축성한 ‘한계고성(寒溪古城)터’가 있는데 몽골 침입 때 원나라에 빼앗겼다가 다시 탈환하였다.



〈그림 8〉 한계산성 위치 그림

■ 금표암(禁標岩)

조선 시대에는 호환(虎患 : 호랑이에게 당하는 피해)이 두렵고 산적이 들끓어 해가 지면 이 영을 넘지 말라고 금표를 새겨 두었는데 이를 새긴 바위를 금표암(禁標岩)이라 한다. 지금은 금표암을 찾을 수 없으나 44번 국도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와 흘림골탐방지원센터 사이에 금표교(禁標橋)가 있어 위치를 짐작할 뿐이다.

### Ⅲ 필여령(弼如嶺)의 유래와 변화

#### 1. 필여령의 유래와 지명의 변화

필여령(弼如嶺)은 본래 필례령이었으나 '례'를 이두(吏讀)로 문자화(文字化)하는 과정에서 '여(如)' 또는 '노(奴)'로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

필노령(弼奴嶺)은 노력을 아끼는 고갯길로 “지름길”이란 뜻이 있는데 오색령에 비하면 필여령이 지름길이었던 셈이다. (옛날에는 奴를 努의 의미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다른 설(說)로는 옛날부터 필례약수 위쪽의 넓은 터에 큰 마을이 있었는데 모두 난리(亂離)를 피해 모여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래(避來:난을 피해서 오다)라 부른 것이 필예(必曳:모두에 이끌리다)로 변화하였으며 결국 은둔(隱遁)의 계곡(溪谷)이 되었다 한다.

1916년 행정구역 통합으로 귀둔리(貴屯里)로 바뀌기 전까지도 마을 이름은 피래(避來)였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필례로 변화했는데 1917년에 제작된 지도에도 필례(必禮)로 등재되었고 지금은 “필례령(必曳嶺)”이 공식 지명이 되어 약수도 “필례약수(必曳藥水)”로 표기한다. 그러나 지방민들은 여전히 “피래” 또는 “피래 고개”라고 부른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 필례령 입구 삼거리에서 인제군 인제를 가리산리까지 10.7km의 2차선 도로가 필례로(必曳路)로이다. 필례로는 44번 국도가 막힐 때 우회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 2. 마의태자(麻衣太子)와 피래(避來)

필례 계곡을 중심으로 내린천로 방향을 따라가면 대부분 지명이 군사용어 같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난리(亂離)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피래(避來)” “필예(必曳)”는 은둔(隱遁)의 계곡(溪谷)에서 재기를 꿈꾸는 범상치 않은 곳임을 의미한다. 한계산성(寒溪山城), 군대의 진을 뜻하는 원진개(遠鎭介), 갑둔리(甲屯里), 귀둔리(貴屯里), 식량과 관련이 있는 군량밭(軍糧田), 소와 말을 기르던 쇠물안골(牛馬洞), 망을 보는 곳인 망대암(望臺岩)이 그것이다. 이런 이름들은 항몽투쟁(抗蒙鬪爭),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의병들과 관

계 있다는 기록도 간혹 있지만, 구전되고 있는 마의태자의 전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가. 신라의 멸망 후 마의태자가 된 사연과 이주(移住)

『삼국사기』 권 제12 신라본기 제12를 보면 경순왕 9년(935년 10월)에 “경순왕이 사방토지가 모두 다른 나라의 것이 되고 국력은 약세로 고립되니 스스로 안정시키기 불가능하여 아랫사람들과 더불어 토지를 들고 고려 태조에게 항복할까 하는데 신하들의 의견은 가한지? 불가한지? 를 논의하라 하니” “나라의 존망은 반드시 천명(天命)에 달린 것이오니. 오직 충성스러운 신하, 의로운 선비와 합심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스스로 지키다가 힘이 다한 후에 그만두어야지, 어찌 천년 사직(社稷)을 하루아침에 가벼이 남에게 주겠느냐고 태자가 왕에게 울며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皆骨山)에 들어가 바위를 집으로 삼고, 삼베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일생을 마치니” 마의태자(麻衣太子)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일설은 경순 대왕께 태자가 크게 반발하자 신하들도 삼국사기 원문에서처럼 전쟁도 없이 나라를 바치는 것에 대하여 “혹은 반대하고 혹은 찬성(或以爲可, 或以爲不可)” 하였으니 반대파는 태자가 움직일 때 한 무리에 소속되어 함께 하였다고 한다.

마의태자는 신라를 출발하여 충주와 원주를 거쳐 양평에서 흥천을 지나 인제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사찰과 인연이 확인된다. 가까운 곳 위주로 살펴본다면 흥천군 동면에는 왕이 지나갔다 하여 지왕동(至王洞)과 왕터인 왕지(王址)가 있으며 인근에는 사찰이 있었다 한다.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金富里)에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의태자 김일(金鎰)의 위패를 모신 대왕각(大王閣)이 있는데 마을에서 일 년에 두 번 재(齋)를 모신다고 한다.

- 위패는 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지신위(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鎰之神位)이다. 신라 경순 대왕의 태자 김일(金鎰)의 신위를 지금까지 모시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태자공 후손들의 집성촌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 마의태자가 세상을 등지고 이동해 오는 곳마다 사찰과의 전설이 전하는 것은 당시에 충신들이 신라의 복원을 꿈꾸며 승려로 신분을 숨기고 은둔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사찰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마의태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합법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사찰이었을 것이다.

### 나. 마의태자의 유적과 진위 논란

이 지역에는 마의태자에 대한 지명과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신라의 옥새(玉璽)를 숨겼다는 옥새바위, 마의태자의 수레(手車)가 넘어 다녔다는 수구네미, 맹장군이 마의태자를 수행하며 의병을 모으고 군사적인 준비를 하던 맹개골, 군량미를 경작하던 군량전(軍糧田), 고토를 회복하고 항거운동을 하기 위한 다물리(多勿里), 이 밖에도 옥터골(獄塗谷)과 갑둔리(甲屯里), 을둔리(乙屯里) 등으로 대부분이 군사적인 용어이다.

부령 김씨 세보(世譜)에는 경주김씨 29세인 경순왕의 아들 태자 일(鎰)을 시조로 모시는데 자(字)는 겸용(謙用) 시호는 태자공(太子公)이라 기록되어 있다.

‘김부리의 김부(金富)가 마의태자 김일(金鎰)이 아니다’라는 논란도 있지만 향찰 표기의 전문가인 청주대 양원철 교수는 일(鎰)자와 부(富)자는 같은 뜻으로 일(鎰)자는 무게 단위인 ‘스물넉 냥’을 나타내지만, 그 뜻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아래와 같이 해석되어 두 글자는 ‘넉넉하다’와 “많다”는 뜻으로 쓰여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런 표기는 당시에 신분과 이름을 감출 때 사용되었으며 옛 문헌에도 가끔 볼 수 있어 사례로 소개된 것을 인용한다.

- 당시는 일(鎰) = 일(溢) 같이 쓰였으며 가차별작(假借別作)으로 하면 익(益)으로 부(富)와 같은 뜻(많다, 넉넉하다)으로 쓰였다.
- 牛首州(우수주) = 牛頭州(우두주) ⇒ 수(首)와 두(頭)는 ‘머리’를 뜻하므로 같은 지명
- 月明里(월명리) = 月明巷(월명항) ⇒ 리(里)와 항(巷)은 ‘마을’을 뜻하므로 같음.
- 居柒夫(거칠부) = 荒宗(황종) ⇒ ‘居柒’은 ‘거칠’로 읽히며, 부(夫)는 ‘마루’이다. ‘荒’은 거칠황이니 ‘거칠’이고, ‘宗’은 마루 종으로 ‘마루’이니 같은 사람이다.

논란은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김부(金富)가 마의태자(麻衣太子) 김일(金鎰)이라는 것이다.

### 다. 삼국사기에 대한 의구심(疑懼心)

『삼국사기』에서는 “왕자가 울며 왕에게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皆骨山)에 들어가 바위를 집으로 삼고, 삼베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의태자에 대한 입산(入山) 이후의 행적은 어디에도 없다.

개골산이 금강산으로 확정적으로 되어있기는 해도 혹자는 개골산은 낙엽이 진 앙상한 겨울산으로 눈 덮인 설악산(雪岳山)과 그 의미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금강산과 설

악산의 물리적 거리는 생각보다 매우 짧는데 1911년 일제가 사찰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행한 본·말사법(本末寺法)에 의해 우리 지역의 모든 사찰은 금강산 건봉사(乾鳳寺)의 말사로 관리되어 『건봉사금강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에 올라 있었다.

1987년 갑둔초등학교 이태무교사에 의하여 발견된 인제 갑둔리 5층 석탑은 신라가 멸망한 뒤에도 유민(遺民)들이 오랫동안 고토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김부와 그 가계(家繼)의 역할을 놓아줄 수 없어 간절한 발원으로 붙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문에 의하면 요나라 연호 태평 16년이면 1036년으로 신라가 망하고 이미 100년이 흘러 고려 정종 2년이다. 그때까지도 김부를 기렸다면 신라의 부흥 운동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인제 갑둔리 5층 석탑 명문의 해석문

“널리 보살계를 지키는 부처님의 제자 구는 상주(돌아가신 왕)인 김부와 가문의 수명이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5층 석탑을 만들어 영원토록 공양합니다. 1036년 8월”



〈그림 9〉 갑둔리 5층 석탑

『고려사(高麗史)』 권21, 세가(世家), 신종(神宗) 5년(1202년) 음력 10월에 “최충헌(崔忠獻)이 이 소식을 듣고 재상(宰相)과 여러 장군을 대관전(大觀殿)에 모아놓고 의논하기를, 경주 사람들이 함부로 옳지 않은 일을 하더니 지금 다시 패거리를 모아서 인근 고을을 공격하고 있으니, 마땅히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해야 합니다.”라는 것으로 보아 신라가 망한 지 20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신라 유민의 반발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마의태자의 금강산행은 좌절한 왕자가 도망치듯 속세를 등진 것이 아니라 재기를 위해 기회를 찾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한다.

양양군 서면의 구룡령 아래인 갈천리 소재 “왕승골(王承洞)”에도 절골(寺谷 : 옛 절터)이 있는데 곳곳에 커다란 돌무더기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곳이 마의태자의 “왕궁터”였다 는 전설이 전한다. 이곳에서 북쪽 고개를 넘으면 진동계곡을 거쳐 귀둔리로 이어진다.

필레령을 넘으면 이어지는 필레 계곡은 1003.8m봉-망대암산-점봉산-작은 점봉산-곰배령(丁嶺)-가칠봉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1003.8m봉-가리봉-주걱봉-삼형제봉으로 이어지는 가리 능선 사이의 깊은 골짜기다. 이 정도 계곡과 산성(山城)이면 마의태자가 머물며 요새(要塞)로 삼아 신라의 부흥을 꿈꾸었을 개연성(蓋然性)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3. 필레약수(必曳藥水)와 온천(溫泉)

필레약수도 역시 “필예” 또는 “피래” 약수로 불리는데 점봉산 서쪽 인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1053-1번지로 44번 국도 필레령 입구에서 6km지점에 있다.

『인제군지』는 1930년경 김씨 성을 가진 이가 발견한 약수라고 하지만 약수의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됐을 것으로 추측한다. 약수 주변의 축대를 조성한 방식이나, 약수가 계곡으로 직접 흘러들지 않고



〈그림 10〉 필레약수터 전경

땅속으로 스미도록 만든 배수구 설치 기술 등으로 보아 약수가 개발된 것은 수백 년 전이었을 것이다. 필레약수의 명칭은 약수터 주변의 지형이 마치 “베를 짜는 여자의 형국”이라 필녀(匹女)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필레약수 주변에는 인가가 없었는데 1994년 필레로(必曳路)가 포장되면서 방문객이 늘었다고 한다.

필레약수는 탄산이 포함되어 위장병은 물론 피부병에도 좋다는 소문에 찾는 이가 많다. 약간의 탄산 성분과 철분이 있어 조금은 비릿한 맛이 난다. 숙취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수로 밥을 지으면 노란빛의 윤기가 흐르며 특이한 맛이 나서 식당에서 약수(藥水)를 이용하여 밥을 지어 판매하는 곳도 있다.

필레약수에서 500m 정도 북쪽으로 오르면 게르마늄 성분의 온천이 있는데 노천탕도 운영한다. 약수 성분과 거의 흡사하여 탄산 성분 때문에 처음 입욕(入浴)하면 피부가 따갑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만 건디면 피곤이 확 풀린다고 한다.

#### 4. 태백산맥과 은비령의 무대

필레로가 포장될 즈음에 임권택 감독이 영화화한 조정래 원작 『태백산맥』이 1994년 9월 17일 개봉되었다. 필레 계곡이 영화 태백산맥의 전투 장면을 촬영했던 장소로 알려지면서 명소가 되었다.

또한 이순원이 1996년 발표한 소설로 ‘우주의 시간과 별의 시간을 건디는 사랑 이야기’가 “은비령(銀飛嶺)”의 배경이 되었다. 이순원이 필레령을 가상(假像)의 지명인 은비령이라 부르면서 소설이 인기를 얻고, 드라마로 제작되자 이 고개를 은비령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현재는 필레약수터 앞에 은비령이란 이름의 펜션이나 가게가 생겨났고, 다음 지도에도 실제 고갯길에 은비령 이름이 붙여지는 등 실제 지명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곳을 작가는 여인을 향한 은밀한 비밀인 은비(隱秘)를 도덕적 치외법권이 있는 은비령(銀飛嶺)에서 흰 눈과 함께 날려 버림으로써 가슴을 짓누르던 소금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도 우리 마음 안에 그의 영혼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소금 짐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곳.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런 곳을 찾아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죽은 친구의 아내인 그녀(선혜)와 죽은 남편의 친구인

내가….”

작가는 은비팔경(銀飛八景)을 통해서 이곳 풍경과 운치를 한껏 드러냈는데 조금만 눈을 감아도 필레 계곡의 풍경이 그려진다.

- 제1경은 화전민(火田民) 마을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삼주가 병풍”으로 원통에서 한 계령으로 오를 때 오른쪽으로 보이는 옥녀탕과 하늘벽, 병풍처럼 펼쳐진 장수대의 뒤편의 삼형제봉과 주격봉, 가리산이다. 모두 해발 1,200m에서 1,500m의 태백산맥의 준령들이다.
- 제2경은 겨울 은비령의 눈 내리는 풍경으로 은비은비(隱秘銀飛 : 비밀스럽게 감춰진 고개위로 날리는 하얀 눈)
- 제3경은 마을 서쪽 한석산에 지는 저녁노을로 한석자운(寒石紫雲 : 한석산 노을빛 구름)
- 제4경은 맑은 날 아침에도 구름처럼 걸쳐져 있는 우풍재의 안개(風嶺霧陣)
- 제5경은 가리산의 가을 단풍(佳里秋丹)
- 제6경은 필레 계곡의 흰 돌 틈 사이로 작은 폭포처럼 가파르게 흐르는 여울(必洞玉川)
- 제7경은 장작으로 밥을 지을 때 안개처럼 낮게 피어올라 바깥마당을 매콤하게 감싸는 연기로 작가가 은둔하던 집의 저녁 풍경인 은자당취연(隱者堂翠煙 : 은둔자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
- 제8경은 맨눈으로도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은궁성라(銀宮星羅 : 은빛 궁궐에 뿌려놓은 밤하늘 별).

## 5. 보부상(裸負商)의 바꾸미[物物交換] 길

오색령은 소동라령의 기능이 미시파령(미시령)으로 옮겨간 후에도 과객(科客)이나 양반, 관료들이 다니는 공로(公路)의 기능을 일부 하였다면 필레령은 보부상이나 “바꾸미(物物交換)”하던 일반인이 넘어 다니는 지름길(捷徑)이었다.

부보상(負裸商)은 보상(裸商)과 부상(負商)을 총칭하는 말인데 보상은 주로 기술적으로 정밀한 세공품이나 값이 비싼 사치품 등의 잡화를 취급한 데 반하여, 부상은 조잡하고

유치한 일용품 등 가내 수공업품 위주로 판매를 하였다. 또한 보상은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판매하였고, 부상은 상품을 지게에 얹어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도 하고 바꾸미(物物交換)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보상을 “벗짐장수”, 부상을 “등짐장수”라고 하였다.

영동과 영서를 오가는 장사는 주로 특산물을 옮기는 부상으로 나귀나 소의 등에 짐을 싣는 질매를 이용하였다.

영(嶺)을 넘어 인제에 도착하려면 100리길(40km)이라 나귀에 짐을 싣고 가면 사나흘에서 열흘 이상씩 이장 저장을 돌며 장사를 하고 돌아와야 수지가 맞았다.

영서 사람들도 주먹밥을 싸서 필레령을 넘어 옥수수과 감자, 콩, 나물 등을 생선과 바꾸기 위해 왕래했지만 설 전에는 제사에 사용할 어물을 구하기 위하여 더욱 빈번히 오갔다.

#### 가. 양양의 토산물

『신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부 토산(土産)조에 보면 철(鐵)이 나오는데 지금의 양양 철광의 위치인 ‘서선사(西禪寺) 동쪽 봉우리 아래서 나온다.’는 기록을 보아 오래전부터 철은 양양의 특산물로 진상도 했지만, 각종 농기구나 무기 등을 만들어 민간에 유통하고 영서지방으로도 많이 팔렸을 것으로 보인다.

양양 보부상 물목에는 소금, 미역, 김 등과 각종 어류(魚類)가 많이 있다. 영서(嶺西) 지방에는 생산이 되지 않아 필수로 포함되어 있는데 짭짤한 이득을 보았다.

소금이라면 서해안의 염전에서 나오는 천일염만 알고 있으나 조선 시대에는 동해안 바닷가에서도 소금이 생산되었다. 조선 시대 동해안 일대에서는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염분(鹽盆, 소금가마)이 있어 소금을 생산하였다. 가마에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소금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진 소금을 “자염(煮鹽)”이라 하였다.

전국의 소금가마 개수가 『세종실록지리지』에 전해오는데 양양도호부는 동산현을 포함하여 40개가 있었다.

## IV 필여령(弼如嶺)을 마치며

필레령은 한양 500리의 오색령과는 달리 동해안에서 만들어진 소금이 내륙인 영서로 전해지던 대표적인 “소금길”이자 지름길이였다. 양양에서 구운 소금, 말린 생선 등이 붓집으로, 혹은 나귀와 소의 등에 실려 필레령을 넘어가 인제에서 곡식, 나물, 버섯 등으로 교환되면서 영서로 전해졌던 길이다.

조선 시대에 작성된 수많은 지도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있더라도 필려령은 오색령(현 한계령) 남쪽 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필려령의 이름도 의미도 여러 번 변경이 되었으나 산과 영은 늘 말없이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사건마다 눈물과 땀을 받아 주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피난처로, 전쟁터로, 관광지로 많은 사람이 찾을 것이고 추억할 것이다. 때로는 어느 예술인의 혼 속에 녹아서 사랑의 장소가 되기도 할 것이다. 과거라고 장뜰뱅이와 주막집 아낙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가 없었겠는가?, 역사는 흘러, 흘러서 인간의 자취가 남을 뿐이다.

필여령을 정리하면서 영을 매개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모쪼록 필레령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03



# 단목령 檀木嶺



단목(박달)령 입구

## I 위치 및 식생

단목령은 서면 오색 1리 오색분교 앞에서 인제군 기린면(麒麟面) 진동리 설피밭까지 연결하는 북암령과 점봉산 사이의 안부(鞍部)를 지나는 고개(嶺路)이다. 예전에는 연수파(連水波), 박달령(朴達嶺)이라 불리었는데 현대 지도에는 단목령(檀木嶺)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영의 정상인 진동리 산 71번지에서 설피밭으로 불리는 인제군 기린면 진동2리 점봉산 산림관리센터(진동리 218번지)까지는 1.4km로 경사가 완만하고, 양양군 서면 오색 1리 상평초등학교 오색분교(오색리 307-1번지) 앞 박달 편익점까지는 2.9km로 가파른 급경사로 소나 말도 쉽게 다닐 수 없는 비탈길이다.

양양에서 인제로 가는 영로(嶺路) 중에서 높이(해발 855m)가 비교적 낮고, 길이도 4.3km로 짧아서 최근까지 이용되었던 영로이다.

단목령은 점봉산(點鳳山, 1,424m), 곰배령(丁嶺)으로도 이어지는 능선으로 예부터 산나물과 목재(木材)를 이용한 목기(木器) 등 생활용품 생산의 보고(寶庫)로 이 길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보호구역의 남쪽은 북암령(소동나령), 조침령으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작은 점봉산, 곰배령, 가칠봉까지이다.

이곳의 「산림유전 자원 보호구역」에는 물이 풍부하여 교목층(喬木層)의 박달나무를 비롯하여 신갈나무, 자작나무, 사시나무, 피나무, 들메나무 등과 아교목층(亞喬木層)의 당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윗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또 관목층(灌木層)의 조릿대, 철쭉, 꽃개회나무(희귀식물) 등의 식물이 자생한다.

지표의 초본층(草本層)에는 모데미풀(특산·희귀식물), 구실바위취(특산·희귀), 한계령풀(희귀), 금강초롱꽃(특산·희귀)과 곰취, 누리대, 단풍취 등 각종 산나물과 작약, 참당귀, 산삼 등의 약초 등이 자라고 있고, 오뉴월이면 야생화가 만발한 천상의 화원이 전개되는 우리나라 대표 원시림이다. 인류의 자연유산을 품고 있는 세계의 유산지다.

이렇듯 단목령은 임산자원이 풍부하여 식물자원의 보고로서 생태적가치가 높아 「천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1987년부터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한반도 자생식물의 20%에 해당하는 854종이 자라고 있고, 그중 보호대상 희귀식물도 50여 종이나 되어 유네스코는 1982년에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단목령의 마루금에 오르면 보전지역의 모든 곳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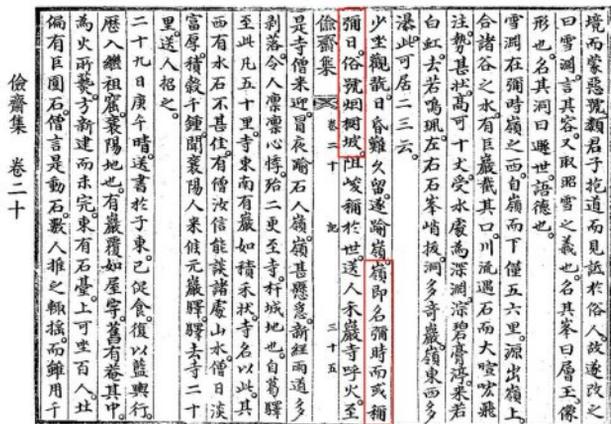
## II 영 이름의 변화와 고문헌 속 단목령

### 1. 영 이름의 변화

단목령(檀木嶺)은 동국지도(1724~1776) 강원도 편에서 연수파(連水坡)로 기록된 후 대부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다만, 팔도지도(1778~1838)에서는 고개 파(坡)가 물결 파(波)로 변하여 연수파(連水波)로 표기하였다.

광여도(1737~1776)와 『대동지지(1861~1866)』에서는 박달령(朴達嶺)으로 기록하고 있다. 연수령(連水嶺)으로 표기한 지도로는 여지도(1777~1778), 좌해지도(1776~1800),

『검재집』 권20 유평악기



〈그림 1〉 『검재집』 권20 「유평악기」의 연수파

좌해여도(1838), 청구도(1834)이다. 청구요람(1863~1907년)에는 원수령(遠水嶺)으로 표기되어 연(連)자를 옮기는 가운데 실수로 원(遠)이 되지 않았나 짐작한다.

그런데 고성군 토성면과 인제군 북면을 잇는 해발 826m의 고개인 미시파령(彌時坡嶺) 즉 미시령(彌矢嶺)이 연수파(連水坡)와 비슷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주의를 요한다.

■ 미시파령(彌時坡嶺)의 이칭(異稱)

- 김유(金樸, 1653~1719)는 『검재집(儉齋集)』 권20 「유풍악기(游楓嶽記)」에서 “고개를 미시(彌時) 혹은 미일(彌日)이라고 칭하고 속세에서는 연수파(烟樹坡 : 연기가 많고 나무가 많은 고개)라 부른다.”(嶺卽名彌時而或稱彌日俗號烟樹坡)고 했다.
- 이중환(1690~1756)은 『택리지(擇里志)』 산수(山水) 편에서 연수령(延壽嶺)이란 표현을 썼다.
- 김정호(1804~1866)는 「대동여지도」와 『여도비지(輿圖備志, 1851~1856)』,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에서 연수파령(連水坡峯)으로 표기하였는데 연수파령(連水坡峯)을 동방문화대학원 권상호교수는 “물길이 이어지는 고개”로 풀이 하였다.

미시령의 이칭 중에서 연수파와 한자로 가장 가까운 것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인데 단목령은 세 글자인 연수파(連水坡)로 표기한 반면, 대동여지도에서는 네 글자인 연수 파령(連水坡嶺)으로 썼다. 고개를 뜻하는 글자인 파(坡)와 영(嶺)을 한꺼번에 쓴 것은 특이하다.

영(嶺)의 이름 중 박달령이라는 이름은 전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으로 연수파(連水坡) 인근에는 박달나무 군락이 많으며 영서쪽 인제 방향 사면에 박달산(朴達山)이 있어 박달령으로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 「해동지도」의 박달령

또한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조선총독부가 측도(測圖)하고 1918년에 발행한 지도에는 박달령(朴達嶺)을 단목령(檀木嶺)으로 바꾸어 기록하였는데 그 후부터 현재까지 단목령이 공식적인 표기가 되었다.

## 2. 고문헌 속 단목령

단목령은 오늘날까지 이용되는 영로(嶺路)이기는 하지만 생계 수단의 대표적 영로였기 때문에 공로(公路) 개념과는 거리관아가 있어 양반이나 문장가가 다니지 않아서 시문(詩文)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양양부 에서의 거리와 방향만 표기한 글이 보이며 기린과의 경계였음을 표기한 것이 전부이다.

### 가. 관동지(關東誌) 제13권

1829~1831년 사이에 편찬된 『관동지』에는 ‘영로 연수파령(連水坡嶺)은 양양부 서북쪽 75리에 있으며 오색령·필노령(弼奴嶺)·박달령은 모두 서쪽 50리에 있는 인제계(麟蹄界)이다.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서쪽 60리에 있는 몹시 험한 영로로 옛날에 경성으로 통하던 대로로 인제계(麟蹄界)이다. 구룡령(九龍嶺)은 서남쪽 65리에 있으며 강릉계(江陵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 나.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년 『대동지지』 영로조(嶺路條)에는 연수파령(連水坡嶺:미시령)·오색령(五色嶺)·필노령·(弼奴嶺)·박달령(朴達嶺)·소동라령(所冬羅嶺)·조침령(曹枕嶺)·구룡령(九龍嶺)·양한치(兩寒峙)·소량치(所良峙)·형제현(兄弟峴) 등 모두 열개의 고개가 열거되어 있다. ‘오색령·필노령·박달령은 부 서쪽 50리로 인제와 경계이다. 소동라령은 부에서 서쪽 60리로 옛날에 서울로 통하는 아주 험한 큰길이 있었는데 인제와 경계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그림 3〉 『대동지지』의 령(嶺)·치(峙)·현(峴) (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 Ⅲ 단목령의 이용실태

#### 1. 조선시대 이전

인접한 양양군과 인제군의 군민이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양양의 소금·해산물 그리고 춘천계 기린현·인제현의 곡물을 『바꾸미(物物交換)』로 교환하기 위하여 연수파(박달령)의 길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 시절에는 행상인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여 물건을 교환하였다. 이렇게 바꾼 물건을 자가 소비하거나 되팔기도 하였지만 전문적인 장사꾼에 이르는 못하였다.

## 2. 조선시대

조선 정조시대에 육의전(六矣廛)을 제외한 금난전권(禁亂廛權)이 폐지되면서 장시(場市)가 개설되어 보부상(裸負商)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장시에서 지역 특산품을 매입하여 생산되지 않은 지역으로 옮겨주고 품값을 받거나 판매하기도 하면서 온 나라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였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사이에 왕명 등 행정 명령을 전달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로가 필요하였고, 통행과 공물·진상 등의 관물(官物)운송, 군사 명령의 전달, 통신 및 교통시설로 역도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조선 세조 8년(1462)에 개설한 상운도(祥雲道)에는 찰방(察訪)이 관할(管轄)하는 역이 16개 역으로 양양도호부에는 상운역 그리고 오색역, 연창역, 인구역, 강선역이 있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공로인 역도를 이용할 수 없는 까닭에 바꾸미[物物交換]하던 일반 인들과 보부상은 짧은 거리인 박달령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림 4〉 인제 기린면 진동리의 단목령

### 가. 보부상(保負商)의 역할과 거래 물목(物目)

조선의 보부상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허가된 상인으로 대개는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범위로 형성되어 있는 상인 조직이다. 공식적으로 국가에 이력을 등록하고 신분증을 받아서 활동하였는데 시장을 돌면서 각 지방의 물품 교환을 촉진하였다.

목화솜을 좌우에 단 패랭이 모자가 보부상의 상징으로 국가에 세금은 물론 노역도 담당하였다. 특히, 임진왜란(1592~1597)과 정유재란(1597~1598), 동학농민운동 당시 선조(宣祖)는 보급을 위해 보부상을 동원했고, 이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1770년대)』에 의하면, 18세기 양양부에는 읍내 장(3, 8일), 동산장(洞山場 4, 9일), 물치장(4, 9일), 부동장(府東場 3, 8일), 상운장(祥雲場, 5, 10일)이 있었다.

18세기 당시 양양 도호부는 행정의 중심지역으로써 영서 지역과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상운장과 동산장은 강릉 가는 길목으로 강릉지역을 포함한 남쪽 지역과도 활발히 교류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제는 소규모 현으로 읍내(邑內)에 시장(市場)이 하나만 개설되어서 3일과 8일에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원경제지』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장시(場市)에서 거래된 물품으로는 쌀·콩·보리·조·기장·메밀 등의 곡물류와 면포·면화·삼베·모시·비단 등의 직물류가 있다.

수공업 제품으로는 농기구·왕골자리·삿자리·초립(草笠)·유기(鋤器)·가족신·의복·신발·갓끈·빗·바늘·분(粉) 등과 수산물로는 조기·청어·준치·민어·굴 등이 있었다. 소·말·돼지·닭 등의 축산물과 감·밤·대추·배·사과 등의 과일류, 배추·파·마늘·무우·오이·참외 등의 채소류도 있었다. 이 외에도 호랑이·사슴·노루 가죽 등의 피물(皮物)이 유통되었는데 명주와 종이는 강릉과 양양에서만 거래되었다.

## 3. 근대(近代)의 피난(避難) 길 단목령

### 가. 동학농민운동

1860년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의 장남 세정(世貞)은 영월, 양양, 인제 등지로 피신하여 생활하면서 그 지역의 교인들을 지도하였다. 동학에 대한 관가(官家)의 탄압이 심해지자

양양 김덕중(金德中)의 집에 피신해 있던 세정은 1870년 10월에 좀 더 안전한 곳인 첩첩산중의 인제 귀둔리로 단목령을 이용하여 거처를 옮겼다. 세정은 처와 둘째 여동생과 함께 귀둔리에 있는 장춘보(張春甫)의 집에서 지냈다. 당시의 귀둔리(貴屯里)는 오색령과 점봉산을 사이에 두고 양양과 인접해 있어 단목령을 이용하면 인제보다 양양이 더 가까운 생활권이었다. 양양의 동학교인(東學敎人)들은 단목령을 넘어 다니며 귀둔리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갔다.

양양 관아에 체포된 김덕중이 고문에 못 이겨 세정의 거처를 말하자 관군을 귀둔리로 보내어 최세정을 체포하여 양양 감옥에 수감하고 세정의 처와 여동생은 인제 감옥에 가두었다. 세정은 양양 감옥에서 고문 끝에 1872년 5월 12일 장사(杖死)되었다.

#### 나. 을미(乙未)년과 정미(丁未)년의 의병활동

동학농민혁명(1894년~1895년)에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은 산간오지(山間奧地)에 은거하여 있다가 1895년 을미(乙未)에 의병에 가담하였다.

1896년 민용호(閔龍戶)가 이끄는 의병과 관군이 충돌하여 양양면 소재지에서 임천리까지 싸움터가 되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관군의 증원으로 의병들이 불리해지자 단목령을 넘어 진동리로 퇴각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전투에서 민가 30여 호가 소실되었다.

정미의병 당시 1908년 5월 9일 이강년이 부하 30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여 양양분건대 및 주재 순사와의 5시간 동안 전투 끝에 1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는 기록이 『폭도사편찬자료(暴徒史編纂資料)』에 기록되어 있다.

산악이 많은 양양과 인제는 의병들의 유격전 활동에 지리적으로 유리하였고, 나아가 이곳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의병들의 활동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 당시 의병들은 박달령을 넘나들며 양양과 인제에서 활동하였다.

#### 다. 일제강점기 바지개꾼의 등장

일제강점기에도 보부상(褸負商)들은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신작로(新作路)와 철도를 개설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류가 이동하였다. 그러나 지방은 여전히 5일 장에 의존하였는데 일제는 일본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조선의 보부상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물자와 화폐를 전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등짐장수가 등

장하였고, 이들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하여 활동했다.

이때에 등장한 등짐장수를 “바지계꾼”이라 불렀으며 이들이 서서 선다고 하여 “선질꾼”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때부터는 대량의 물류가 이동하는 신작로와 항구를 중심으로 장이 발달하였다, 이처럼 장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일제가 정기 시장을 통해 자원을 수탈(收奪)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 선질꾼이 사용한 운반 도구 바지계

등짐장수의 운반 도구는 주로 붓짐과 바지계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게는 지게 몸체와 가지가 한 몸으로 되어있지만, 등짐장수는 지게 몸체만 있고 가지가 없는 “바지계”나 지게 몸체에 가지를 끼워서 만든 “쪽지계”등을 사용하였다. 바지계는 해안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내륙으로 팔러 다니던 등짐장수가 쓰던 지계이다. 이 지역의 등짐장수들은 산을 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파른 산길을 다니기에 유리한 바지계를 사용하였다. 쪽지계는 주로 서해 도서의 평야 지역에서 등짐장수들이 쓰던 지계이다,

선질꾼의 복장은 흰 광목 바지, 저고리에 흰 광목으로 허리에 띠를 매었으며, 머리에는 패랭이 대신 흰 광목천으로 넓게 수건을 만들어 메고 다녔다. 양말 대신 흰 광목으로 누런 물을 들여 감발(발 싸개)을 하고 다녔다.

■ 선질꾼 생활을 하였던 윤희병(1919생) 물치리 대한노인회 회장의 진술

1995년 국립민속박물관이 발간한 『강원도 시장 민속』의 양양군 편에 있어서 소개되었다.

‘해방 전후로 물치장은 잘되는 장이었다.(중략) 한편 서면 서림리 장은 해방 무렵에 없어졌다. 현북면 기사문리의 시장은 해방 이후에 북한 통치 시절에 조금 서다가 없어졌다.(중략)

옛날에는 인제장(또는 원통장)→양양장→물치장→다리바우장(고성군 교암리)→간성장의 순으로 다녔다. 그때 보따리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를 “바지계꾼” 또는 “선질꾼”이라고 불렀다.

선질꾼은 생선 파는 장사꾼인데 품목은 생선과 소금이었다. 바지계꾼은 인제 쪽에서 곡식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

선질꾼은 전문적인 장사꾼이 아니라 생계의 유지를 위한 '물물교환'의 역할을 해준

다. 즉 봄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선질꾼이 주로 활동하여 바꿈이를 하는 것이다.

나(제보자)는 이와 같은 선질꾼을 16세인 1935년에 시작하였으며 10년 정도 하였다. 당시에 생계는 매우 어려웠으며 결혼은 20세에 하였다.

(중략)보통 하루에 짐을 지고 120리 정도는 걸었다. 당시에 출발할 때는 1~2명 정도였지만, 큰길로 가면 여러 명이 되었다. 40세까지도 선질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중략)

선질꾼이 양양에서 인제로 갈 때는 어물 종류인 고등어·소금·미역 등, 특히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많이 갖고 가고, 인제에서 올 때는 주로 콩·팥 등 발곡식을 가지고 왔다. 가고 오는 중간에서 숙식은 주막에서 해결하였다.

콩의 경우에는 주로 메주를 만드는 용으로 사용되었다. 힘이 좋은 선질꾼의 경우 한 번에 고등어 50손(100마리)과 소금 한 가마니를 지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선질꾼은 자체적으로 물건을 사고 옮기며 장사를 하기도 했지만, 대개 물산(物産) 객주(客主)에 고용되어 물건을 옮겨주고 얼마씩 품값을 받았다. 객주는 사람을 두고, 그 지역의 집마다 방문해서 팔든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 4. 광복 이후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선질꾼은 존재했다. 6·25 이후에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단목령을 넘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 김충현(여, 1929년생)

한국전쟁으로 남편은 인민군에 끌려가 생사를 모른 채 돌아오지 않았고 전쟁 중에 집은 불타버려 매우 어렵게 살았다. 양양이 수복(收復)되자 장(醬)이라도 담아 가족들의 호구(糊口)를 연명하려고 봇짐을 만들어 단목령을 넘어 인제읍 진동리 설피밭에 사는 언니네 집으로 갔다. 태어난 지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와 함께 소금 열 뿔박, 아지(전갱이) 자반 한 두름, 북어 한 쾌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지기도 하면서 단목령을 넘어가서 언니가 소개해준 집과 메주 세 덩이, 메주콩 두 말, 고춧가루, 건 나물, 건 버섯 등과 맞바꾸었다.

당시 길이 험했는데도 짐을 지고 단목령을 넘어 오색까지 내려다주고 돌아가시던 형부(兄夫)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고 있다.

1971년 인제에서 오색령을 넘는 44번 국도가 개통되자 단목령을 넘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영로의 기능은 쇠퇴하였다.

그러나 봄철이면 단목령 마루 일대에서 산나물을 대량으로 채취하여 그곳에서 데치고 말려서 건나물로 만들어 등에 지고 운반해 오는 도로로 변화였다.

또한 정부가 씨감자를 보급하기 전에는 양양지역은 영서지방의 고랭지(高冷地) 감자를 구하여 종자로 썼다.

■ 김완달(남, 1944년생), 추종삼(남, 1942년생)님의 증언

소금, 명태, 고등어자반, 마른미역을 한 짐 지고 단목령을 넘어 진동리 설피밭으로 가면 그곳에서 5포대의 씨감자와 교환할 수 있었다. 씨감자의 양이 많고 무거운데다 급경사에 매우 험한 길이라서 한 번에 나를 수는 없었다.

이럴 때는 씨감자를 지고 가기 알맞게 여러 개로 나눈 후 몇 번씩 일정한 장소까지 나르고 다시 그 다음 장소로 운반하기를 반복하여 오색분교 근처까지 힘겹게 옮기는데 이를 전철탈집이라 한다. 전철탈집으로 영을 내려오면 질매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 IV 단목령을 마치며

단목령에서 바꾸미들의 왕래(往來)는 1970년대 초반까지 행하여졌으며 그 이후에는 나물을 채취하고 말려서 내려오는 길로 이용되다가 1982년에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987년부터 입산이 통제되어 단목령은 백두대간(白頭大幹)을 종주하는 사람만이 다니는 길이 되었다.

도로가 발달한 요즘엔 양양에서 인제읍 진동리로 가려면 서면 서림리에서 조침령터널 하나만 지나면 된다. 이로써 단목령을 넘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단목령은 여전히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야생화의 천국이자 옛사람들이 등짐을 지고 험한 고개를 넘어 삶을 이어갔던 애환이 남아 있는 곳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한반도 자생식물의 20%에 해당하는 854종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식물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단목령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단목령은 유네스코 등재 지역으로 세계에서 주목하는 곳이 되었다.



〈그림 5〉 백두대간 단목령 표지석



04



# 소동라령 所冬羅嶺



소동라령(북암령) 입구

## I 머리말



〈그림 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44  
산천조에 표기된 소동라령 (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계령이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역사기록에 보면 분명히 오색령, 소동라령, 옛 한계령은 모두 다른 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는 마치 오색령(한계령)과 소동라령이 같은 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의 바드라재[所等羅嶺]가 근거인 양 포장까지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8년도에 발간한 『한국 지명 유래집』에도 한계령이 “옛날에는 소동라령이라고 불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설악산은 중추가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에 이르러 녹으므로 설악, 설산, 설화산으로 불리었고 소동라령도 같은 뜻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한계령으로 바뀌었다”는 막연하고도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서 ‘소동라령’을 검색하면 현재의 한계령이 옛 소동라령인 양, 왜곡되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소동라령의 주변 환경을 살펴서 한계령과 그 의미를 비교하고, 고지도와 문헌을 통해 경계, 하천, 거리 등을 고증하고자 한다. 또한 소동라령을 실사한 기록을 토대로 잘못된 알려진 사실과 위치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소동라령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소동라령(현 북암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에서 “요해(要害)는 본부(府) 서쪽으로부터 인제 경계 바드라재[所等羅嶺]로 가는데 36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는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치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외따로 떨어져 구석지고 몹시 으스스하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라는 기록이 있는 등 소동라령에 대한 역사기록들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현재의

## Ⅱ 소동라령(所冬羅嶺)의 위치와 의미

### 1. 고지도(古地圖)를 통해서 본 소동라령

소동라령과 오색령, 옛 한계령(동여도 참조)은 명백하게 다른 영(嶺)이었다. 이는 먼저 <표 1>과 해동지도(海東地圖)에 표기된 고개 명칭을 보면 오색령, 소동라령은 다른 위치의 영으로 함께 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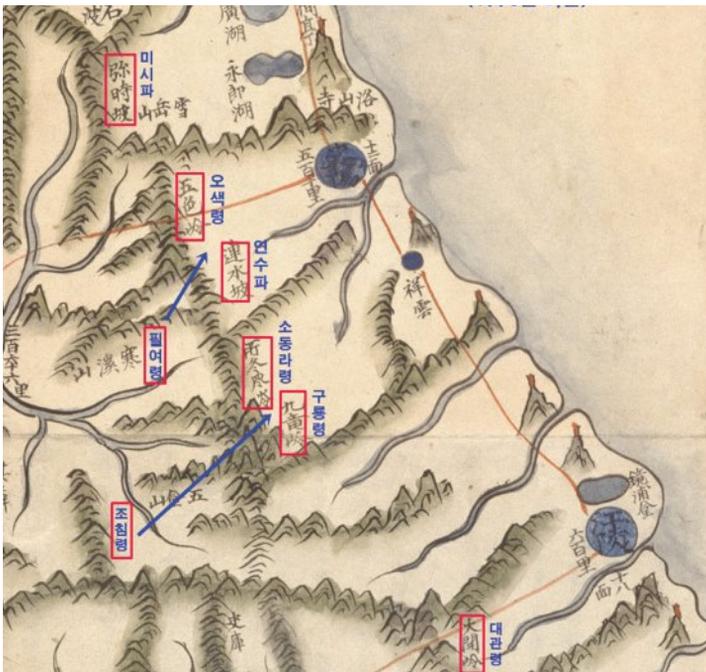
<표 1> 소동라령이 표기된 옛 지도들

제 작 년 도	지 도 명	고지도에 표기된 고개 명칭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 연수파	소동라령 (북암령)	구룡령
1758	팔도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76	해동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89	여 지 도		오색령		연수령	소동라령	구룡령
1830	좌해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834	청 구 도		오색령	필여령	연수령	소동라령	
1857	동 여 도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구룡령
1776	좌해분도		오색령			소동라령	
1750	해동지도(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1776	지 승(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1800	광여도(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 상기의 지도들은 오색령(한계령)과 소동라령(북암령)을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이 영들은 영동에서 영서로 통하는 백두대간을 넘는 영들이기 때문에 지도상에도 북에서부터 남으로 순차적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어 글로 기록된 문헌에 비해 영의 좌우 관계를 그려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모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연수파(박달령)와 구룡령 사이에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동라령은 오색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의 한계령(오색령)이 아니고 현재의 북암령(北庵嶺)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해동지도」에 표기되어있는 양양지방의 백두대간 영 순서

## 2. 요해처(要害處)인 소동라령(所冬羅嶺)

인제군에서는 지금의 한계령은 소동라령(所冬羅嶺)과 오색령으로 불렀던 것이며, 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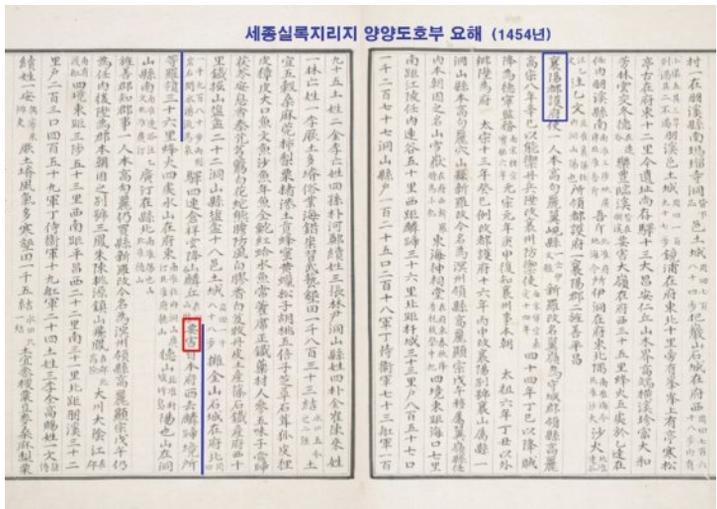
지도에 소동라령을 오색령으로 표기했다'고 하는데 <표 1>을 보면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이 순서대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인제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일축한다.

또한 최병헌 전 인제문화원부원장은 “한계령의 옛 이름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바드라재’ 이고 한문으로 표기할 때는 소동라령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의미를 되새겨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한국고전번역원법(200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고전번역원』이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에서 ‘소동라령(所等羅嶺)’을 ‘바드라재’로 번역하였기 공식적 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번역임을 전제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요해는 본부(府) 서쪽으로부터 인제 경계 바드라재(所等羅嶺)로 가는데 36리이다.” 요해(要害)란 적(敵)을 막기에는 편리하고 적이 쳐들어오기는 불리하여 지세가 험한 곳을 말한다. 부에서 36리 떨어져 있으면 지금의 거리로 약 14km로 매우 가까운 곳이라야 한다.

먼저 요해처(要害處)는 아군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적이 대규모로 쳐들어오려면 병력과 장비, 식량, 마초(馬草)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오솔길보다는 대로인 역로(驛路)로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조금만 지식이 있는 장수라면 도로 폭이 2m가 넘는 역로(驛路)를 두고 우마가 다닐 수 없는 오솔길 수준의 영로(嶺路)를 택할 지휘관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림 3>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 요해의 소동라령(바드라재)

소동라령은 성종 24년 이전까지는 역로(驛路)였으니 세종 때는 우마의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 거기에는 소동라령이 폐쇄된 이유가 절험지(絶險地)이고 궁벽지(窮僻地)이기 때문이다. 즉 절벽이 험하고, 외따로 떨어져 있어 몹시 으스스한 곳이기 때문에 적을 막기에는 통행로 몇 곳만 훼손하고 길목을 지키면 되는 곳이다.

그러나 오색령에 우마차(牛馬車)가 겨우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말인 1939년 이후부터다.

거리에 대하여 알아보면 36리는 양양군의 모든 영(嶺) 중에서는 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소동라령(북암령) 밖에는 없다.

대정 4년(1915)에 측도하여 1918년에 발행한 1/50000 조선총독부 지도를 보면 당시 도로를 짐작할 수 있어 아래 코스인 소동라령 입구까지의 거리를 실측하면 12.8km로 30리가 조금 넘으니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여도비지(輿圖備志)』 권15, 양양도호부의 영로(嶺路)조에 관아에서 서쪽으로 30리에 소량치(所良峙)가 있으며 오색령으로 통하는 도로이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소량치 즉 서늘재를 넘어서 내려간 후 소동라령 입구가 나오니 36리는 타당해 보인다.

▶ 양양부에서 소동라령 입구까지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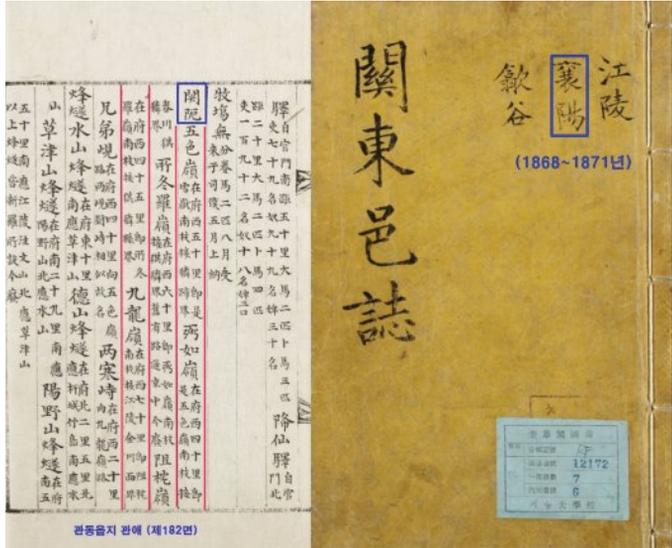
양양군청(郡廳) ⇒ 서문리(西門里) ⇒ 임천리(林泉里) ⇒ 향현(香峴 : 상평고개) ⇒ 상촌리(上村里 : 상평리) ⇒ 장승리(長承里) ⇒ 흑간리(黑澗里 : 양양철광) ⇒ 소량치(所良峙 : 서늘재) ⇒ 가라피리(加羅皮里) ⇒ 한령(寒嶺 : 빨딱고개) ⇒ 소동라령 입구 ⇒ 소동라령

이것을 종합하면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의 “요해(要害)는 바로 소동라령으로 우리말로는 바드라재이다. 다만, 인제현 경계가 아니고 기린현 경계임을 밝힌다.

### 3. 문헌 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여지도서(輿地圖書, 1765년)』의 양양 관애(關陔)편에는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형제현·양한치 등의 일곱 항목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오색령은 설악 남쪽 가지에 접하고 인제와 경계를 이룬다. 필여령은 오색령 남쪽

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춘천 기린계이다. 소동라령은 필여령 남쪽가지에 접해 있고 기린계로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조침령은 소동라령 남쪽 가지에 접하고 기린계이다. 구룡령은 조침령 남쪽 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강릉 금천면과 경계를 이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관동읍지』(그림 4) 『관동읍지』의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關陘)편에도 “오색령은 설악산 남쪽 가지에 접해있고 인제와 경계이고, 필여령은 오색령 남쪽 가지에 접해있고 춘천 기린과 경계하며, 소동라령은 필여령 남쪽 가지에 접해있고 기린과 경계하며 과거 서울로 가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조침령은 소동라령 남쪽 가지에 접해있고 기린과 경계한다. 구룡령은 조침령 남쪽 가지에 접해있으며 강릉 금천면과 경계한다.”고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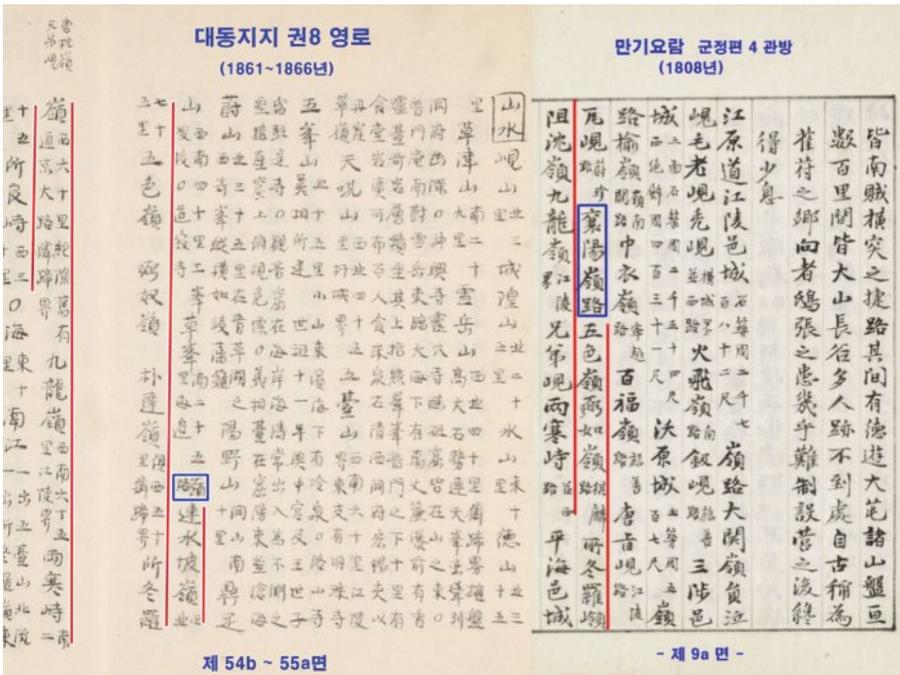
이를 종합하면 소동라령은 필여령과 조침령 사이에 있었던 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여령 북쪽에 위치한 현재의 한계령(오색령)은 소동라령이 아님을 여기서도 증명하고 있다.

#### 4. 경계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위 문헌뿐만 아니라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년)』 양양 영로조(嶺路條)에도 연수파

령·오색령·필여령·박달령·소동라령·구룡령·양한치·소랑치 등 모두 여덟 개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서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 모두 서쪽 50리 인제계이고,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로 아주 험하며 서울로 통하는 대로였다. 기린계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편에는 “양양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이고, 기린(棋麟)통로는 소동라령·조침령이다. 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兄弟峯)·양한치(兩寒峙)는 모두 서쪽 통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5〉 『대동지지』 영로조와, 『만기요람』의 양양영로 (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와 같이 모든 역사기록에서 소동라령은 춘천 기린계라고 하고 있어 현재의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를 경계로 하는 영(嶺)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5. 하천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제현편 산천조와 『연려실기술』 별집 16권 총지리, 다산 정약용의 『산수심원기』 등에 보면 “미륵천은 인제현 동쪽 5리에 있다. 미륵수(彌勒之水)의 원류가 넷인데 하나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파령(所波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서화현(瑞和縣)에서 나오고, 하나는 기린현(基麟縣)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보면, 인제로 흘러드는 수계는 금강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서화현’으로 나오는 수계, ‘소파령(현 진부령)’ 일대에서 발원하여 원통으로 흐르는 설악산 수계, 오대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기린현’을 거쳐 나오는 수계, 나머지 한 수계는 점봉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귀둔 지역을 경유하여 나오는 수계로 이 수계가 소동라령 수계이다. 소동라령은 <그림 7>과 같이 기린현 진동리를 거쳐 곰배령과 귀둔, 하추리, 고사리(촌), 합강정을 거치는 경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소동라령의 수계도 (1) 「대동여지도」



〈그림 8〉 소동라령 수계도 (II)  
인제현「광여도」

1767년의 「인제현 여지도」, 1776년의 「인제현 지승」, 〈그림 8〉의 1800년의 「인제현 광여도」 등에서도 소동라령은 현재의 한계령이 아닌, 귀둔고관묘, 추동, 고사촌, 임선대, 합강정, 인제현으로 이어지는 영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양지역의 하천 기록을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44권 양양도호부편에 “남대천(南大川)은 부 남쪽 2리에 있는데 강릉부 오대산(五臺山)에서 나오며 소동라령(所冬羅嶺) 물과 합치고 부 남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양양 남대천의 본류는 오대산이며 구룡령과 오색령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북암령(소동라령)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합류하여 내려오다 양양을 내어서 오대산 본류와 합류하여 바다로 들어가므로 소동라령은 현재의 북암령으로 불리며 정상을 넘

으면 서쪽은 기린현 진동리를 거쳐 귀둔으로 이어지는 영로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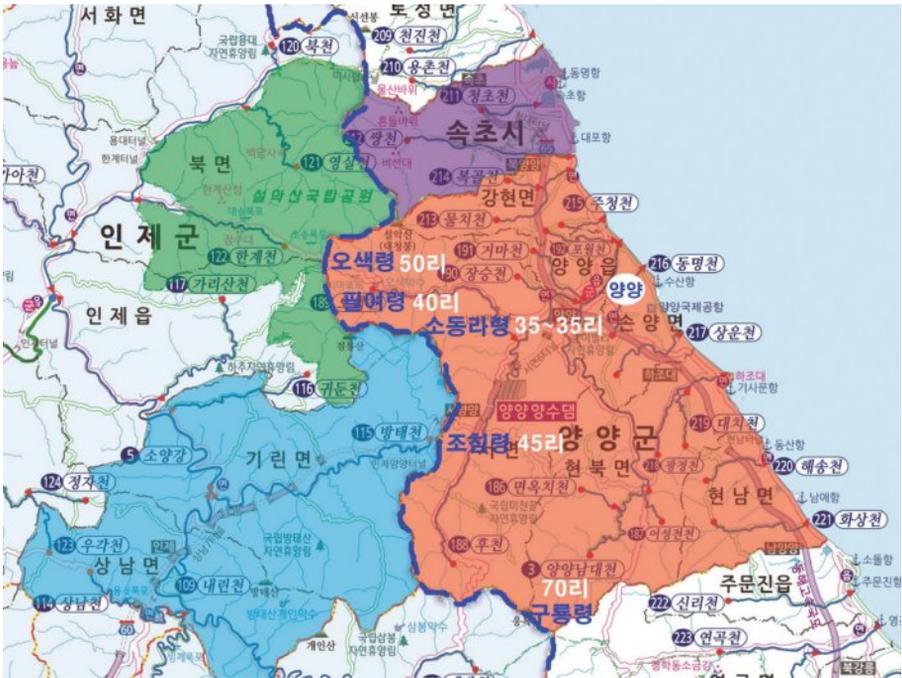
## 6. 거리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지금까지 고지도와 각종 문헌을 확인한 결과 소동라령은 박달령(연수파)과 조침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고지도의 기록을 보면 양양부에서 소동라령까지의 거리를 60리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에는 거리를 측량하는 기술의 한계도 있지만 영의 입구까지냐, 정상까지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양양도호부편에는 “소동라령”을 “소동라령(所等羅嶺)”이라 표기하고 양양부(府) 서쪽 인제 경계로 36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923년 『양주읍지(현산지)』에는 “소동라령은 부에서 서쪽으로 30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소동라령의 입구까지의 거리임을 앞에서 입증하였다.

이는 『여지도서』와 『관동읍지』 관해편에 오색령은 50리, 필여령은 40리, 조침령은 45리라고 한 점에 비추어 백두대간 능선의 지형으로 볼 때, 필여령과 조침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동라령의 진입로는 당연히 양양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의 기록처럼 양양부에서 30리에서 36리가 맞는 기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상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면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림 9〉 양양에서 백두대간 영까지의 거리

### III 현재 지명과 비교 및 실사

#### 1. 소동라령과 소어령, 북암령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기록들을 바탕으로 소동라령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유 금강산기』를 보면 “(낙산사에서) 20리쯤 가서 양양부(襄陽府) 앞의 냇가에 이르러 말을 쉬게 하였다. 또 10리를 가서 설악에 들어가 소어령(所於嶺:소동라령의 옛 이름) 아래 고개에 오르니, 냇물은 왼쪽에 있고 산봉우리는 오른쪽에 있다. 산기슭을 다 지나 냇물을 건너 왼쪽으로 가니, 산은 맑고 물은 빼어나며 흰 바위가 서로 포개진 것이 대략 금강산 대장동(大藏洞)과 같다.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그림 10〉 오늘날의 지도에 고지도를 연계시켜본 소동라령

오색역(五色驛)에 이르니 산 위의 달이 이미 흰빛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어령(所於嶺)은 일본인들이 만든 지명으로 지금도 옛 지명인 소어(所於), 소래(所川)라고 부르며 소동라령의 준말을 소어령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양양에서 오색으로 향하노라면 중간쯤 지점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개가 있다. 일명 발딱고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한령(寒嶺)이라 하였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보이는 마을이 송어리와 송천리인데 두 마을 사이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 북암리(北庵里)로 기린면 진동리로 연결되는 대로(大路)에 옛 고갯길이 있다. 지금은 북암령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 고개의 옛 지명이 소어령 즉 소동라령이다.

『유 금강산기』의 남효온선생도 소어령 아래 고개를 지나 오색으로 갔다고 하고 있어 소동라령 아래 한(寒)고개나 망령(望靈 : 송어리에서 송천을 넘는 재) 고개를 지나 오색으로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그림 10>에서 보듯이 소동라령은 양양부 관아에서 흑간리[양양광업소 사향골]를 거쳐 소량치와 가라피리를 내려와 망령고개(望靈峙)나 한령을 넘고 송천이나 송어리를 거쳐 지금의 북암령(소동라령)을 넘어 기린현내 진동리 현 점봉산산림생태관리센터로 산을 내려간 후 곰배령을 거쳐 귀둔, 추동, 고사촌, 합강정을 경유해 인제로 연결되는 영로였다

## 2. 현지 실사를 통해서 본 소동라령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강원도(江原道) 간성군편에 보면 “미시파령(彌時坡嶺)은 고을 서남쪽 80리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고 적고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부 산천조에도 “소동라령(所冬羅嶺)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외따로 떨어져 구석지고 몹시 으스스하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 소동라령으로 부르던 북암령을 실사한 결과 귀둔(耳屯, 耳呑)에서 진동리로 연결되는 곰배령 옛길은 이미 탐방코스가 되어있었다.

기린면 진동리 230번지 일원에서 북암령 정상까지는 완만한 고개이며 일부 도로가 유

실되긴 하였으나 옛길의 도로 폭이 2m 정도로 우마차가 다닐만한 대로(大路)였다. 정상에는 이정표를 세웠던 돌무지가 있었다.



〈그림 11〉 현 북암령 정상 표지판과 이정표로 상징되는 옛 돌무지 모습

“조선시대는 6척(尺)을 1보(步), 360보를 1리(里), 30리를 1식(息)이라고 하고 10리마다 작은 표식을, 30리마다 큰 표식을 세웠다. 30리마다 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일정한 거리마다 돌무지를 쌓고, 장승을 세워 거리와 지명을 기록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였다.” 영 정상의 돌무지 주변에는 돌이 없는데도 규격이 고른 돌을 쌓은 것으로 보아서 국가에서 관리하던 역로를 표시하려고 일부러 옮겨다 쌓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에서 북암리로 향하는 동쪽은 급경사로 계곡을 따라 길이 형성되어 폭우로 많은 구간이 유실되어 있었으나 영로가 폐지된 지 5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구간에는 도로의 형태가 남아있었다. 노퍽은 진동리 방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2미터 이상은 되어 보였다. 그러나 양양에서 한(寒:발딱) 고개나 망령(송천리로 향하는 언덕) 고개를 먼저 넘은 후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窮僻地)라는 소동라령을 다시 올라야 하는 것은 고된 길로 보였다.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역로(驛路) 인데도 비만 오면 유실되는 급경사인 소동라령은 관리하기 매우 어려워 결국은 폐지하게 되었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조선말까지도 일반인들은 이 영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며 이를 입증 하듯이 1911년 조선 지지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인제편 영치현 명(嶺峙峴名)에 보면 곰배령(丁嶺, 곰배령)을 양양으로 통하는 영로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행자들이 민가에서 숙박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던 원(院)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그 기능이 쇠퇴하자 개인이 운영하는 주막(店舖)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진동리에서 길손들이 먹고 자던 주막으로는 갈터주막, 삼거리주막이 있었으며, 귀둔리에는 버덩말주막, 곰배골주막, 하추리에는 가래울



〈그림 12〉 인제 기린면 진동리에서 본 소동라령

어주막, 당수터주막, 원대리에 안삼재주막 등이 있었다. 이 구간에 특별히 많은 주막이 남아 있었던 것은 영로를 넘는 길손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 IV 오색역과 소동라령의 관계

### 1. 오색역의 역할

역(驛)은 역관(驛館)·역참(驛站)·우역(郵驛)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찰방(察訪)의 역무(驛務)는 주로 중앙과 지방관아 사이의 공문서를 전달하고 관수물자를 운송하며 사신 왕래에 따른 숙박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로 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였다. 이중 역로(驛路)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수물자의 운송이었다.

소동라령 입구에서 정상을 넘어 기린현 진동리 현 점봉산산림생태관리센터까지는 약



<그림 13> 옛 오색령 위치의 현 관타마을

12km의 거리로 영의 길이지만 30리다. 이 긴 거리를 왜 역로(驛路)로 지정했을까?

태백산맥의 오색준령 일대는 고도가 1,000m 내외로 짧은 거리를 택하여 영을 넘으면 급경사로 우마차가 운영할 수가 없기에 긴 거리의 산길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으며 긴 거리의 산길인 까닭에 도로의 유지 보수가 어려워 역로(驛路) 운영을 포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공문서 전달이나 관원의 이동은 말을 타고 오색령이나 다른 영을 넘을 수도 있지만 많은 양의 관수물자 이동에는 우마차가 통행해야 하기에 역로인 소동라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을 것이다.

## 2. 소동라령과 오색역의 변화

오색역(五色驛)의 설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462년(세조 8) 역제(驛制)를 41역도(驛道) 543속역(屬驛) 체제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오색역(五色驛)은 상운도(祥雲道)를 구성하는 하나의 속역이 되었다.

오색역은 1493년(성종 24)에 원암역으로 이설되었기 때문에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년~1765년』 강원도 양양부 편에는 오색역에 관한 기록이 없고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필여령의 남쪽 지맥으로 인제(기린) 경계에 접해있다. 과거에 서울로 가는 도로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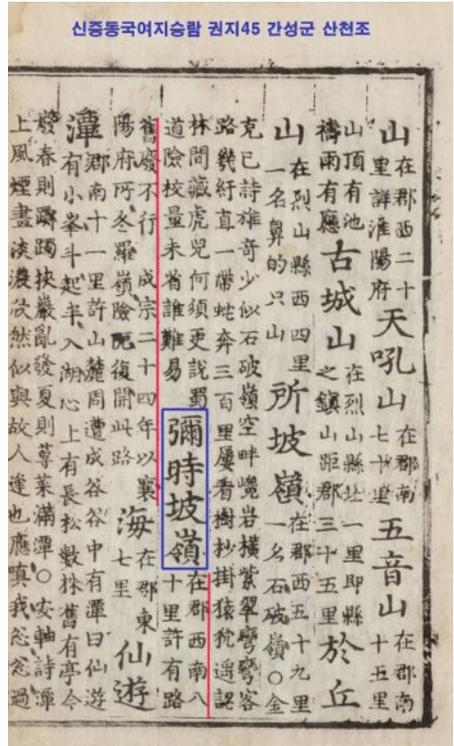
『여지도서(輿地圖書)』 강원도 간성군 편역원(驛院)조에는 ‘원암역은 군 남쪽 60리에 있으며 대마 2필, 복마 5필, 역리 11명, 노비 48명, 여종은 없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성종 연간에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오색역이 원암역으로 옮겨 갔어도 오색령은 본래의 기능을 다하며 남아있었으나 소동라령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즉 오색역과 소동라령은 같은 기능을 수행한 운명 공동체로 동시에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제45 간성군 산천(山川)조에 ‘미시파령(彌時坡嶺)은 고을 서남쪽 80리 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역원(驛院)조에는 ‘원암역(元岩驛) 옛터는 고을 서남쪽 63리에 있었다. 미시파령(彌時坡嶺)의 길이 열리면서 오색역(五色驛)을 철거하여 여기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제45 간성군 편 산천조에 미시파령이 왜 소동라령을 대신하고 있는지와 원암역이 왜 오색역을 대신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준다.

결국 성종 24년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 역로(驛路)로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미시파령(彌時坡嶺) 길이 열렸고 이 길을 유지 보수하던 오색역(五色驛)도 간성 원암역(元岩驛)으로 이설되면서 이름도 바뀌었다.



〈그림 14〉 『신증동국여지승람』 간성군 산천조의 미시파령

## V 맺음말

고지도, 각종 문헌 등을 확인한 결과 과거의 소동라령, 오색령(한계령)은 일부의 주장과 달리 모두 서로 다른 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동라령은 고지도, 고문헌, 경계의 기록, 하천의 수계, 양양부에서의 거리, 현지 답사 등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오색령이 아니라, 필여령 남쪽 지맥에 위치한 춘천부 기린계로 연결되는 영으로, 양양에서 송어리를 거쳐 지금의 북암령(北庵嶺, 옛 소어령, 소동라령)과 기린계 진동리, 곰배령(곰뱅고개)에서 함강정, 인제로 이어지는 영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색역은 오색령으로 넘는 관원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편의는 제공하였만 보다 근본적인 업무는 소동라령으로 진상품과 관수물자 운반이 주요한 업무였다. 따라서 소동라령을 통하여 서울로 운반하는 기능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미시파령이 대신하게 되자 오색역도 원암역으로 옮겨 가서 새로운 역로의 지원을 계속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오색역이 옮겨진 후에도 오색령은 영로로서 여전히 남아있었다.

오색령은 역로(驛路)가 아닌 영로(嶺路)일 뿐이었고 미시파령(彌時坡嶺)으로 옮겨가기 이전까지 양양부의 유일한 역로(驛路)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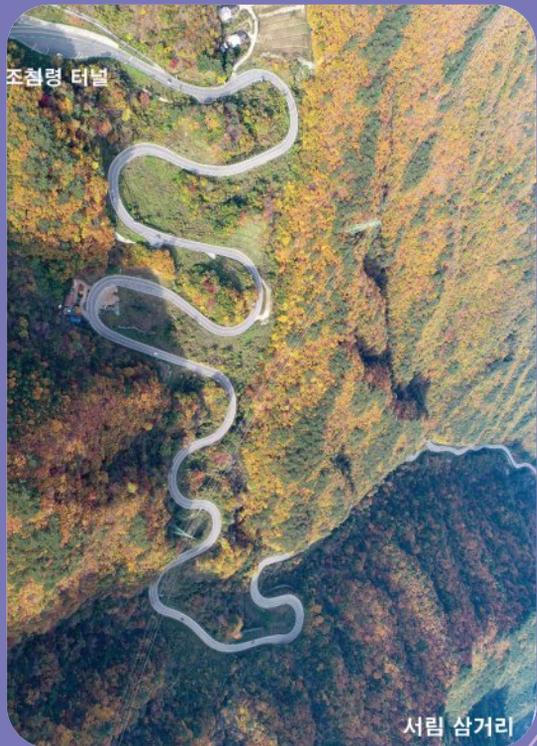


〈그림 15〉 미시령 전경

05



# 조침령 鳥寢嶺



조침령로 전경

## I 머리말

과거에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로 가는 조침령(鳥寢嶺)은 선질 끈이나 마꾼의 바꾸미 길이였다. 그런데 418번 지방도가 개통되면서 옛 조침령은 주로 구룡령에서 출발하여 갈전곡봉(1,204m) ⇒ 조침령 ⇒ 북암령 ⇒ 단목령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종주(縱走) 길로 이용 된다. 지방도가 개통된 후 옛 조침령은 도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영(嶺)의 높이는 770m이나 조침령로가 2차선으로 개통되면서 영마루까지 다 오르지 않고 8부 능선에 조침령 터널을 개통함으로써 높이가 600m로 대폭 낮아졌다. 터널 개통으로 쓸모없어진 터널 위쪽의 조침령 옛길은 백두대간 숲길로 복원되어가고 있다.

과거 조침령로는 인마(人馬)만 다니던 셋길이 따로 있었는데 1984년 11월 22일 군인들에 의해 지금의 노선과 비슷하게 비포장의 험한 고갯길로 만들어졌다.

그 이후 1990년대 들어 양양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상부담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로 개설이 추진되었는데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다가 사업비 중 일부를 한전(현재 한국중부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공사를 시작하였다.

양수발전소의 하부담(양양군 서면 영덕리)에서 상부담(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으로 바로 가려면 조침령을 거쳐야 한다. 2006년에 조침령 터널을 포함한 조침령로 전 구간이 개통되어 양양에서 인제군 기린면으로 가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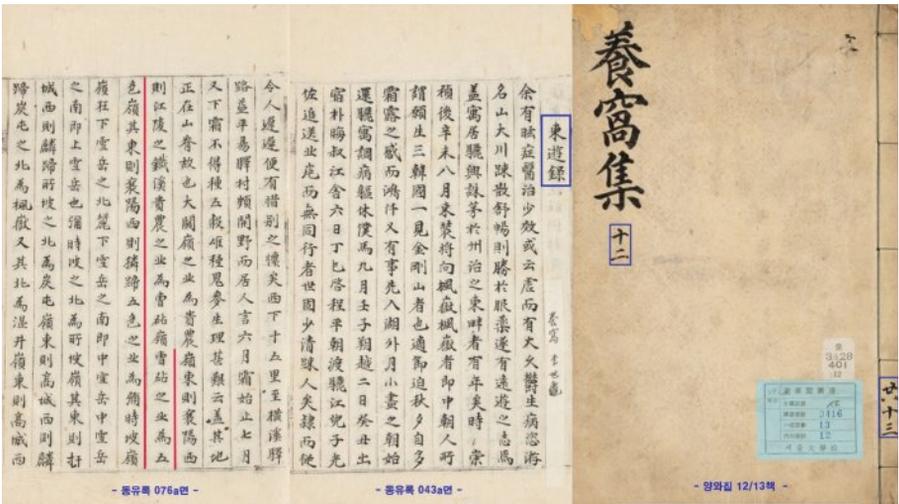
현 조침령로는 56번 국도인 구룡령로를 가다가 서림삼거리에서 북쪽으로 오르면 된다. 이 길로 390m 정도 오르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림 2교를 만나는데 서림 2교 서쪽 서울 방향에 국내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인제양양터널”이 있는데 무려 약11km이다.

기린면 진동리는 행정구역상 인제군에 속하지만 예전부터 이곳 사람들은 양양과 왕래가 잦았다. 지금도 양양 5일장을 보러 다니는 것은 물론 교통이 편리해지자 양양군의 교육도서관, 문화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을 적잖이 이용한다. 양양 서림리 조침령 입구에는 진동리로 배달되는 택배보관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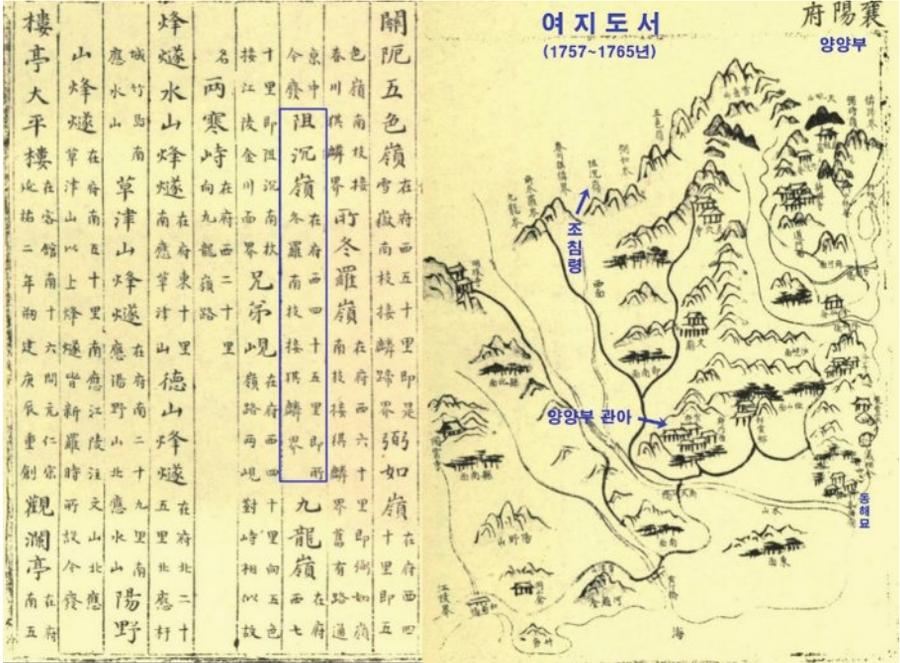
## II 조침령의 고찰

### 1. 고문헌 속의 조침령

숙종 때 홍주목사(洪州牧使)를 역임한 양와(養窩) 이세구(李世龜, 1646~1700년)가 1691년 10월 3일 관동지방의 4개 군을 여행하면서 지은 기행문 「동유록(東遊錄)」이 『양와집(養窩集)』에 실려 전하는데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다. 그 동쪽은 양양(襄陽)이고 서쪽은 인제(麟蹄)이며 오색령 북쪽은 미시파령(미시령)을 이룬다.”라고 적었다. ‘조침(曹砮)’령이라는 명칭으로는 이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1〉 『양와집』 12/13책 「동유록」의 조침령 (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2〉 『여지도서』 관애조의 조침령

1757년(영조 33)에서 1765년(영조 41)에 전국 읍지를 모아 관찬(官撰)한 『여지도서』 관애조(關陔條)에도 조침령(阻沉嶺)이라는 명칭 나오는데, 조침령은 “관아 서쪽 45리에 있으며 소동라령(북암령) 남쪽 줄기로서 기린현 경계에 접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808년(순조 8)에 호조판서(戶曹判書) 서영보(徐榮輔)와 부제학(副提學) 심상규(沈象奎)가 비국유사당상(備局有司堂上)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찬진(撰進) 한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양양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 기린(棋麟)통로는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兄弟峴)·양한치(兩寒峙) 모두 서쪽 통로다.”라 기록되어 있다.

1822년~1826년에 편찬된 『관동지(關東誌)』 관애조(關陔條)에도 조침령(阻枕嶺)은 “관아 서쪽 45리에 있으며 소동라령(북암령) 남쪽 줄기로서 기린현 경계에 접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871년(고종 8)에 발간된 『관동읍지(關東邑誌)』 양양부 관애조(關陔條)에도 같은 내용이 전한다.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 조침령은 소동라령과 구룡령 사이에 있으며 춘천부 기린현 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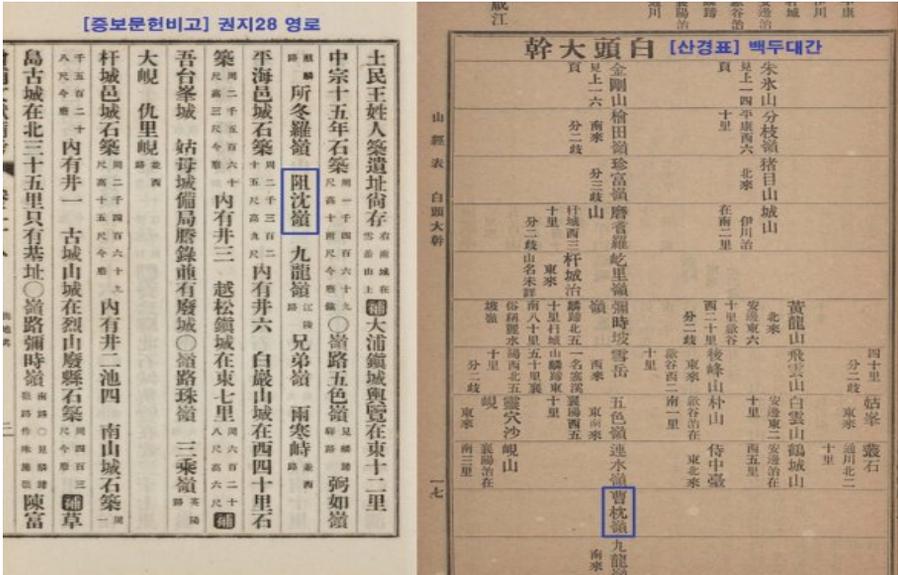


〈그림 3〉 양한치(큰양한치, 작은양한치) 전경

## 2. 조침령 이름에 대한 고찰

한글 표기로는 문헌 모두 ‘조침령’이지만 한자 표기는 다양하다. 1691년 양와 이세구(李世龜)의 『양와집(養窩集)』 「동유록(東遊錄)」에는 ‘조침령(曹砮嶺)’으로 되어있는데 “한 덩어리의 모탕 같은 영”이란 뜻이다. 즉 조(曹)는 덩어리나 무리를 뜻하며, 침(砮)은 모탕을 뜻한다. 모탕이란 도끼로 나무를 팠 때 바쳐 놓는 나무인데 하도 도끼를 맞아서 가운데가 움푹 파인 형태이다.

『여지도서』에는 조침령(阻沉嶺)인데 “지세가 험하며 가라앉은 영”이란 뜻이다. 『증보문헌비고』는 영조(英祖) 대인 1770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1782년 정조(正祖) 대에 보완·증보되어 이어오다가, 1908년에 간행되었는데 조침령(阻沈嶺)으로 표기된 침(沉)자는 침(沈)자의 속자(俗字)이다.



〈그림 4〉 『증보문헌비고』, 『산경표』의 조침령

영조(英祖) 때 신경준이 편찬한 지리서인 『산경표』와 1750~1768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도』에는 조침령(曹枕嶺)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양와집(養窩集)』 「동유록(東遊錄)」의 '조침령(曹砮嶺)'은 침 자가 베게 침(枕)으로 바뀌었다. 베게도 역시 가운데가 잘록하니 같은 뜻이라 하겠다.

1737~1776년에 제작된 「광여도」에는 조침령(阻沈嶺)으로 썼는데 “지세가 험하여 타고 넘는 영”이라는 의미이다. 조침령의 정상이 영의 좌우측(左右側)보다 낮아 말안장 모양의 안부(鞍部)로 보면 한자(漢字)를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 50,000분의 1 지형도에는 조침령(鳥寢嶺), 1919년에 편찬된 『조선지리지』는 조침령(鳥沉嶺)으로 각각 다른 한자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새가 넘는 잘록한 영”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림 5〉 「조선지도」의 曹枕嶺과 「광여도」의 阻枕嶺

백두대간 표지석에는 조침령(鳥寢嶺)으로 표기하였는데 “새들도 자고 넘는 고개”로 다분히 문학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요약해보면 조침령의 한자 표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曹砮嶺 → 阻沉嶺 → 曹枕嶺 → 阻枕嶺 → 鳥砮嶺 → 鳥沉嶺 → 鳥寢嶺

### Ⅲ 조침령로의 변화

#### 1. 옛 조침영로

조침령은 양양군 서면 서림리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를 연결하는 고개로 주로 소금을

지고 넘나들었다고 한다. 조침령도 구룡령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길이 본래의 옛길이 아니다.

본래의 옛길은 지금의 조침령로보다 1.7km 남서쪽에 위치한 쇠나드리 고개가 옛 조침령이었다. 이 길은 서림삼거리에서 조침령로 서쪽 골짜기로 오르면 옛 조침령 정상인 '쇠나드리'로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바람부리'라고 불렀는데 같은 곳으로 보기도 한다. "소도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힘차게 불어 '쇠나드리'라 한다."는 설과 "소 풀이 많아서 그 풀을 뜯어 먹기 위해 소가 나들이 간다."는 뜻에서 '쇠나드리'로 부른다." 고도한다. 쇠나드리 정상에서 진동리로 내려가면 '쇠나드리교'로 나온다.

거꾸로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조침영로를 타면 옛 조침령 입구(기린면 진동2리)까지는 10여km로 도로 옆으로 방태천이 흐른다. 또한 도로변에는 방태산 휴양림과 방동약수로 가는 길이 있다. 쇠나드리교 인근에서 옛 조침령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곳부터 산행을 시작하면 15분이면 옛 조침령 고갯마루(쇠나드리)에 닿을 수 있다. 그러나 서면 서림리로 내려가는 계곡은 가파르고 험난하다. 1983년까지는 조침령이라 불렀는데



〈그림 6〉 인제 기린면 진동리 쇠나드리교

이제는 '쇠나드리' 다.

옛날에는 쇠나드리를 조침령이라 하고 지금의 조침령은 '반부득 고개'라 불렀다.

## 2. 군사도로

군부대가 만든 군사도로는 418번 지방도의 전신으로 3군단 공병여단이 1983년에 착공하여 1984년 11월 22일 완공한 도로이다.

공사를 마치고 군부대에서 강돌을 주어 다 시멘트와 배합해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돌을 얹어 표지석을 세웠다. 2007년 10월 25일 이 도로 정상에 인제군 국유림관리소에서 새로운 표지석을 세움으로써 옛 표지석이 되었다.



〈그림 7〉 군부대에서 세운 옛 조침령 표지석

## 3. 418번 지방도

418번 도로는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서 인제군 기린면 진방삼거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地方道)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첫 번째 구간은 조침령로이며, 두 번째는 양양군 서면 서림리~현북면 면옥치리 구간으로 이 구간은 비포장 임도로 사실상 통행 불가하며 현재는 확장 및 포장 계획이 없다. 세 번째 구간은 송이로(松茸路)로 포장된 2차선으로 현북면 면옥치리~어성정리, 상광정리를 지나 하광정리 7호선 국도와 만나는 지점까지이다.

특히, 인제군 기린면 진방삼거리 현리교 입구에서~양양군 서면 서림삼거리까지를 “조

침령로(鳥寢嶺路)”라 하며 약 27km에 달하는데 2006년에 조침령 터널을 포함한 조침령로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실질적인 조침령로는 서림삼거리에서 진동삼거리까지는 약 6km이며 조침령 터널 길이는 1.145km이다. 서림삼거리에서 조침령 터널 입구까지는 약 4.2km이다.

현재 양양에서 서쪽 영으로 통행하는 포장도로는 오색령, 조침령, 구룡령이 있는데 조침령 포장도로가 개통되기 전 인제읍에서 양양까지 오색령을 경유하면 1시간 30분인데 반해 조침령이 포장되면서 30분이 소요되어 약 1시간가량 단축되었으며, 거리 또한 83km에서 43km로 40km가 단축되었다.

## Ⅳ 머리말

### 1. 옛 조침령로 쇠나드리



〈그림 8〉 옛 조침령 입구 서림 삼거리

현 조침령로(418지방도로)가 포장되기 이전의 옛 조침령(쇠나드리)은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로 넘어가는 백두대간의 고개로 진동리와 방동리 일대 주민들이 양양으로 장을 보러 다니던 길이기도 했다.

진동리에서 정상의 바람부리 쪽에서 쇠나드리

를 넘어 옛길을 통하여 서림으로 내려가는 계곡은 온갖 산나물과 야생화 군락지로 봄에는 계곡 전체가 꽃밭이 되며 야생화가 만개하면 선경(仙境)이 따로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계곡 가장자리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몇 군데 축대가 남아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목재 반출을 위해 만든 산판(山坂)길 흔적이라고 한다.

과거 영을 넘나드는 선질꾼 1명의 짐은 대략 100근(60kg) 정도의 짐을 지고 영을 넘어 다녔으며 힘이 좋은 선질꾼은 한 번에 고등어 100마리나 소금 한 가마를 지고 다녔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양양 서림에서 인제 기린까지의 약 6~7군데의 주막에서 묵는데 밥값은 당시 화폐로 10~15전(9,600원~14,400원)을 받았다고 한다.

서림리에서 옛 조침령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입구에는 마꾼이 말과 함께 묵을 수 있는 마방터(구룡령로 2081 일대)가 있었으며 조침령 정상인 쇠나드리에도 마방이 있었다. 마꾼이나 선질꾼은 취급하는 품목이 같지만 마꾼은 말 한 마리에 선질꾼의 약 3배가 넘는 짐을 싣고 다닐 수 있었다. 콩과 팥을 각 10말씩 총 20말을 싣고 다녔다. 마꾼 행렬이 많은 경우에는 한 번에 20여 명이 약 25필 정도의 말을 몰고 다녔다. 이들은 선질꾼보다 더 많은 물건을 운반하기에 우월감이 있었으며 평지에서는 말을 타고 다니기에 빠른 이동이 가능하였다. 마꾼은 8.15해방 전후로 모두 없어졌다.

당시 인제로 통하는 영로(嶺路) 중에서는 주로 조침령과 박달령을 많이 넘어 다녔다.

조침령은 말은 다니기 쉬우나 거리가 멀었고, 단목령(박달령)은 말이 다니기에는 험하지만 거리가 짧아서 바꾸미들이 이 영을 넘나들었다. 특히 진동리(설피밭)는 한때 약초 재배가 성행하면서 약초를 판매하려는 농장주가 많이 넘어 다녔다.



〈그림 9〉 조침령 정상

## 2. 현 조침령로



〈그림 10〉 눈 덮인 조침령 모습

1984년부터는 비포장 군사도로를 이용하다가 2006년부터는 770m의 고개가 600m로 낮아지면서 모든 것은 차로 운반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조침령 마루금은 백두대간을 종단하는 대간꾼들의 발길만이 이어진다.

조침령과 구룡령은 자전거 힐클라임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라이더에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유

명한 곳이다. 한 번 도전하면 높고 험한 지형이라 완주의 자부심이 대단하며 구불구불 끝없는 오르막길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최고의 코스이다.

정상에 서면 막힘없이 뺨 뚫린 시야가 시원하게 펼쳐지며 긴 업, 힐에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

### V 맺는 말

진동리에서 군사도로로 정상 삼거리에 올라 단목령 방향으로 150m를 가면 헬기장이 나오고, 다시 100m를 더 이동하면 1984년에 공병여단에서 만든 조침령 표지석이 나온다. 이곳에서 50m를 더 가면 2007년 10월 25일 인제 국유림관리소에서 세운 '백두대

간 조침령(鳥寢嶺)이라고 쓴 대간석(大幹石)에 이르게 된다.

대간석 뒤편에는 백두대간 조침령(770m)은 백두에서 지리산까지 1,400km의 중간지점이라 새겨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전체 백두대간의 정중앙지점은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이다.”고 밝혔다.

『정감록』에서는 강원도 홍천과 인제의 골짜기 중 일곱 곳을 들어 “3둔 4가리”라 하였



〈그림 11〉 2007년 산림청이 세운 조침령 표시석

다. 흉년과 전염병이 없고, 전쟁과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토피아, 우리나라 최고의 피난처가 바로 우리군의 영로와 연결된 장소들이다. ‘둔(屯)’은 골짜기가 깊어 사람 몇이 숨어 살 만한 작은 은둔처를 가리키고, ‘가리(耕)’는 화전을 일구어 밭갈이할 만한 곳으로, 난세를 피해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3둔은 구룡령 너머로 내린천 상류인 홍천군 내면에 있는데 살둔(生屯), 달둔(達屯), 월둔(月屯) 세 곳을 지칭하고, 4가리는 박달령, 북암령, 조침령 너머의 인제군 기린면의 진동계곡인 진동리와 방동리에 있는데 아침가리(朝耕洞), 연가리(煙耕里), 적가리(適巖洞), 명지가리(큰 소(沼)가 있던 마을로 명지동(明池洞))이다.

영로의 확·포장으로 이제 신비의 3둔4가리도 세상을 헤집고 나올 날도 머지않았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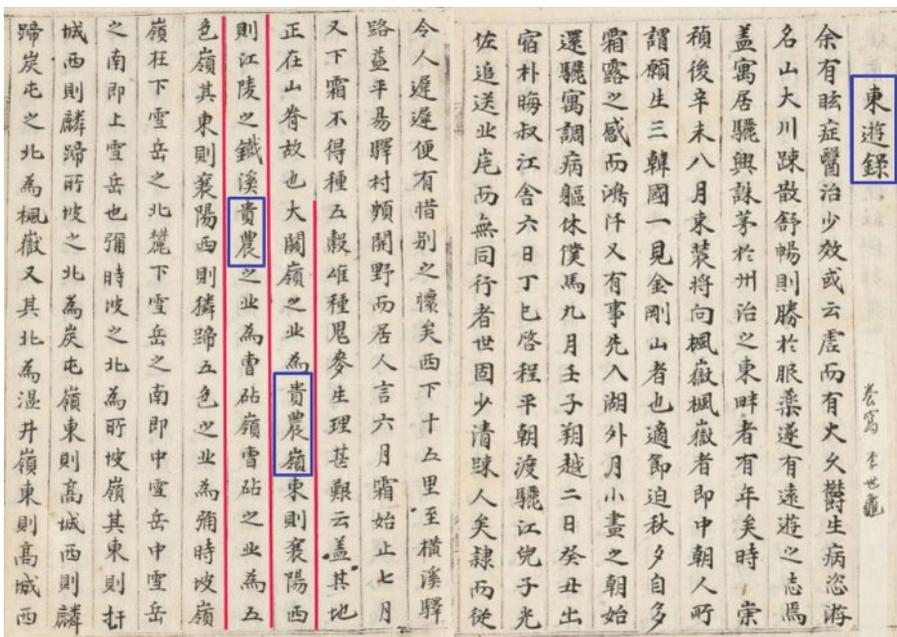
구룡령 九龍嶺



구룡령 전경

## I 이름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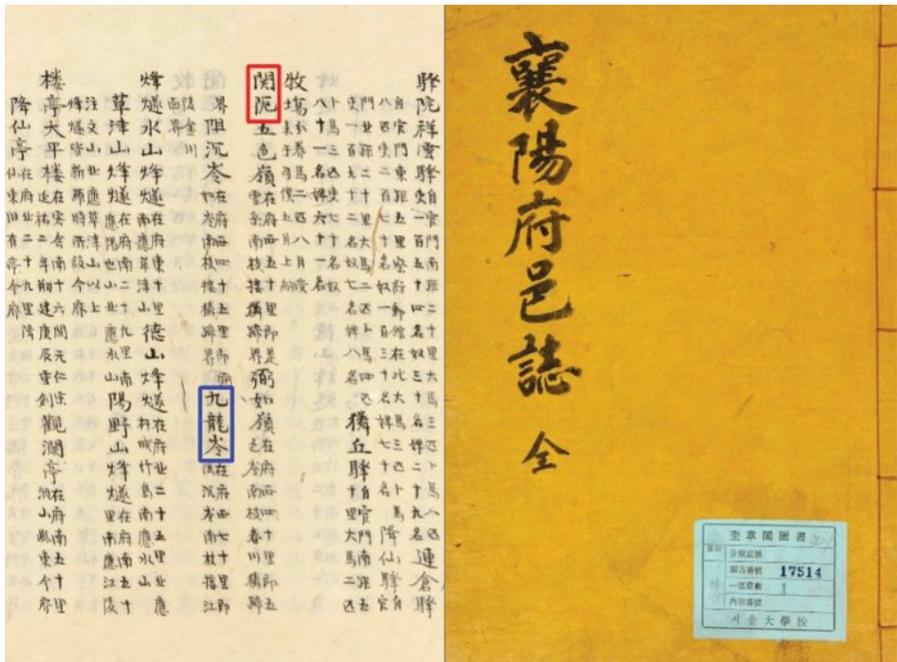
구룡령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길을 낸 것이 마치 구불구불한 용 아홉 마리가 하늘로 오르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려시대에는 '구름을 잡는 높은 고개'라는 뜻의 구운령(拘雲嶺)으로 불렸다. 구운령(狗雲嶺)이라는 설도 있다. 양양 갈천에 사는 장가를 못 간 어느 총각이 흥천 처녀 한 명을 보쌌하여 영을 넘어오던 중 구름이 짙어져 길을 잃어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각이 집에서 키우던 개가 나타나 구름을 뚫고 길을 안내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그림 1〉『양와집』 13책 「동유록」에 표기되어있는 귀농령(貴農嶺)

조선 중기의 문신 이세구의 시문집 『양와집(養窩集)』 제13책 「동유록(東遊錄)」에는 귀

농령(貴農嶺)으로 표기되기도 하였으나, 『양양부읍지』와 「비변사인방안지도」 등에 구룡령(九龍嶺)으로 표기되었고, 1860년대의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에도 구룡령으로 표기되어 현재에 이른다. 서해에서 동해를 찾아오던 아홉 마리 용이 이 고개를 넘다 지쳐서 얽드린 자세로 갈천약수에서 목을 축인 후 동해로 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고개이다.



〈그림 2〉 『양양부읍지』 관애조의 구룡령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II 구룡령의 변화

### 1. 두 개의 구룡령길

구룡령길은 두 개이다. 둘 다 양양군과 홍천군을 잇는 길이지만 하나는 56번 국도이고 다른 하나는 트레일로 유명한 옛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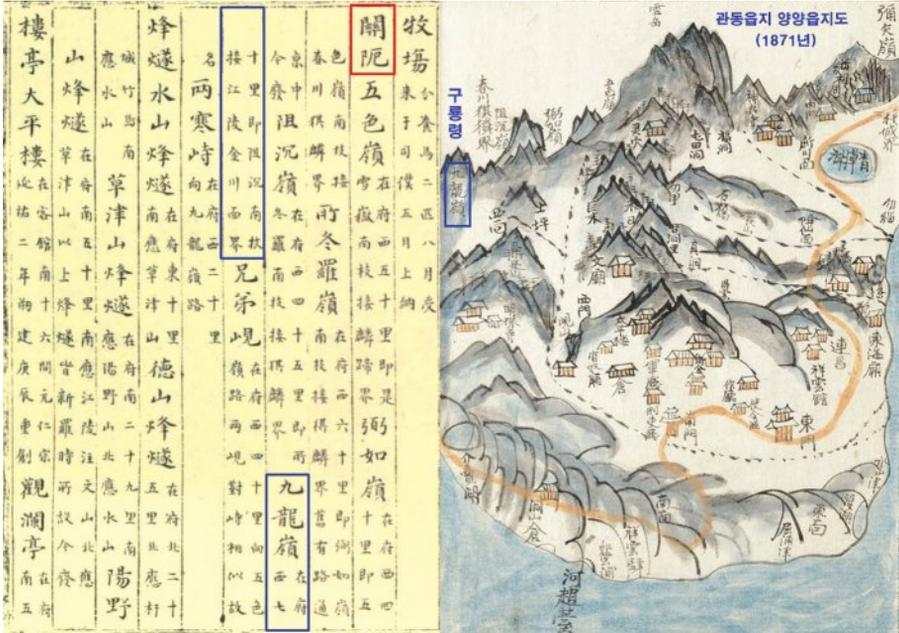
구룡령옛길은 양양군 서면 갈천리와 홍천군 내면 명개리에 걸쳐있는 고개로 양양군의 남쪽에서 백두대간을 넘는 길이다. 옛길 정상(해발 1089m)을 기준으로 명개리까지 약 3.7km, 갈천리까지 약 2.76km인데 옛길 정상은 56번국도 구룡령 정상(해발 1013m)에서 1.2km정도 더 올라간다.

56번 국도는 총연장 231km로 양양군 양양읍~홍천~춘천~화천~철원군 김화읍을 연결한다. 1987년 춘천~동면 구간을 시작으로 1991~1995년에 걸쳐 갈천~양양 구간이 완공되었는데 이 중 일부 구간은 일본이 수탈한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1908년 개설되었다.

구절양장(九折羊腸) 굽잇길 모습은 옛길보다는 56번 국도에서 확연하다.

### 2. 동서와 남북 교류의 흔적, 구룡령옛길

구룡령옛길 정상은 북위 37도 53분, 동경 128도 30분에 위치하는데 위도로 보면 강릉과 인접한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와 비슷하니 양양군 최남단에서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영(嶺)이라 하겠다. 『여지도서』 양양도호부편에 ‘관문에서 서남쪽으로 서림까지 30리, 서림에서 구룡령까지 40리, 구룡령에서 강릉 경계 인암(印巖)까지 30리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룡령을 기점으로 양양-홍천-강릉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옛길 정상은 강릉과 평창 사이에 있는 진고개(약 21km)와 양양과 인제를 사이에 있는 초침령(약 21km)을 잇는 백두대간 마루금\*의 중간에 위치한다. (\*마루금 : 산마루와 산마루를 잇는 선)



〈그림 3〉 『여지도서』 관애조의 구룡령과 『관동읍지』 양양읍지도에 표기된 구룡령

### 3. 바꾸미들이 넘던 고개

명개리는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양양군 서면에서 홍천군 내면으로 이관되었으니 그 이전 구룡령옛길은 영동의 양양과 영서의 양양을 연결하는 길이었다.

구룡령 너머  
 감 익는 마을 있을까  
 가을 서성이는 고갯마루

새털구름 따라  
노랑 가노라니  
집집마다 마중 나온 감나무  
홍등 밝힌다  
여기가 어디래요  
말씨 꼬수분 아낙  
야양 서림이래요  
그래 노을처럼 하룻밤 자고 가자  
앞장서니  
달 삼킨 듯  
그대가 웃으며 따라온다

- 허림, 〈서림이라는 곳〉 전문



〈그림 4〉 구룡령 전경

허림 시인은 흥천 출신인데 그의 시 한 편을 보더라도 구룡령 너머 두 마을이 거리는 멀지 않지만 자라는 식물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영동에서는 소금과 해산물이, 영서에서는 감자 같은 고랭지 작물과 콩 팥 수수 깨 등 곡물이 구룡령옛길을 통해 교환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양양 지역의 임산물과 광물자원을 외지로 반출하기 위해 현 56번 국도의 일부 구간에 도로를 놓았는데 이 길이 개통되면서 구룡령옛길은 점차 교역로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 Ⅲ 역사속의 구룡령

#### 1. 양양남대천 수원(水源) 중의 하나

양양남대천의 수계(水系)는 본천, 후천과 오색천의 세 갈래인데, 후천은 구룡령에서 발원한 서림천과 약수산에서 발원한 청계천 그리고 응복산에서 나온 벽계천이 서면 황이리 미천골 입구에서 합류한 것이다.

응복산은 양양군 서면과 현북면 및 흥천군 내면에 걸쳐있는 산으로 두로봉에서 구룡령 사이에 위치하는데 산의 형상이 매가 엮드린 거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약수산에는 명개리약수가 있다.

갈천리 본동에서 서쪽 하천을 따라 2km가량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이곳을 약수골 또는 단이골이라 한다. 갈천약수는 탄산 성분이 높고 용출량도 많아 양양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환영을 받는다.

#### 2. 구룡철광

구룡령옛길에는 폐철광인 구룡광산이 있는데 서면 갈천리 산 28번지에 약 90헥타르(약 272,250평) 넓이에 분포한다. 태평양전쟁 중인 1940년대 초,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



〈그림 5〉 옛 구룡광산 갱도 입구

되어 전쟁물자로 공출되다가 해방과 더불어 채광이 중단되었다. 한국전쟁 후 함태광산에서 인수하여 월 300톤 규모로 채굴하였으나 채산성이 없어 1974년 이후 생산을 중단하였다. 강점기에 사용하던 석도(索道)와 원형이 보존된 갱도 1개소 및 입구가 함몰된 갱도 두 곳이 남아있다. 징집을 면한 젊은이들이 끌려와 정과 지렛대 같은 조악한 공구로 100미터 정도의 갱을 뚫었다 하니 그 노역의 고달픔을 짐작할 수 있겠다.

### 3. 반쟁이

반쟁이는 두 지점 가운데의 가운데쯤 되는 곳을 일컫는 반정(半程)에서 나온 말로 구룡령옛길에는 몇 개의 반쟁이가 있어 위치를 알려준다. 갈천에서 정상 방향으로 보면 묘반쟁이, 솔반쟁이, 횃돌반쟁이 순이다. 묘반쟁이는 전설이 전해온다. 양양과 흥천의 경계

를 정할 때 두 지역에서 각자 출발하여 만나는 지점을 경계로 하기로 했다. 이때 양양을 대표하는 청년이 양양 땅을 조금이라도 넓히고자 열심히 달리다가 지쳐 죽었는데 그 공적을 기리고자 묘를 만들어 묘반쟁이로 기념하였다 한다. 횡돌반쟁이는 묘에다 회 다짐을 할 때 넣는 석회석을 깨던 곳이고 술반쟁이는 황장목급 소나무가 자생하는 곳이다.

#### 4. 황장봉산(黃腸封山)

조선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질 좋은 소나무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나무 군락지를 국가에서 지정하여 황장봉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양양군에는 황장봉산이 두 곳에 있는데, 하나는 '부연산황 장봉산'으로 현북면 법수치·어성전리·원일전리·장리 일대이고 다른 하나는 서면 구룡령 일대의 '전림산 황장봉산'으로 그 둘레가 330리에 이르



〈그림 6〉 「비변사인방안지도」의 전림 황장봉산이 둘레가 330리이다.

렸다. 구룡령 황장봉산의 금표는 흥천군 명개리 산 43번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양양군 서면 영덕리 김해김씨 문중의 소유이다. 이 금표는 당초 명개리 산 43번지에 위치



〈그림 7〉 2021년 7월 명개리에서 흥천박물관으로 이전한 전림황장산 금표  
(주) 남계백리(南界百里)는 양양관아에서 100리에 위치한 지점이라는 뜻이다.

하고 있었으나 2010년 4월 농업용수관 매설공사로 명개리 210번지로 옮겼다가 2021.7.21일 흥천박물관으로 이전되었는데, 역사적 또는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당초에 세워져있었던 그 자리에서 보존되어야 문화적 가치가 있을것이다.

이 땅을 경작하던 최종열 씨의 증언에 의하면 1960년대 초반, 이 지역에서 벌채한 아름드리 소나무는 속이 대부분 적색을 띠었고 GMC 화물차보다 길었는데 그런 황장목을 화물적재함 양쪽 옆으로 길게 동여매고 일제강점기에 닦은 구룡령 좁은 길을 통해 운송하였다 한다. 그 당시 최종열 씨는 갈천국민학교로 학용품을 타러 갈 때 구룡령옛길을

이용했다. 뛰다시피 하면 명개리에서 갈천초등학교까지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같은 시간대에 출발한 소나무를 실은 차와 학생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갈천초등학교 부근에 도착했다고 한다. 벌채한 소나무는 선박 건조에 사용한다고 들었다.

1990년대 경북궁 복원에 쓰인 금강송 중 40그루는 구룡령옛길에 있는 군락지(갈천입구에서 묘반쟁이 사이에 위치함)에서 벌목되었다.

## 5. 명승 제29호

명승(名勝)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경치가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구룡령옛길 정상에서 양양까지의 구간은 2007년 12월 대한민국 명승 제29호로 지정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길로서 명승에 등재된 곳은 문경새재, 죽령옛길과 문경토끼비리를 포함하여 네 곳뿐이다.

## Ⅳ 구룡령옛길의 가치

구룡령이 위치한 마을 갈천은 오래전부터 화전민이 살던 곳이다. 어려울 때 화전민들은 칩으로 연명하였는데 칩뿌리를 얼마나 씻었는지 냇물이 온통 칩빛으로 변할 정도였다. 갈천이라는 마을 이름은 칩 갈(葛)과 내 천(川)에서 유래한 ‘칩내’였는데 음운변화를 거쳐 ‘치래’라고도 불렸다.

치래마을 안내판에는 ‘갈천7보’라는 보물을 소개하고 있다. 1보는 구룡령고개, 2보는 갈천약수, 3보는 회귀한 송어가 올라오다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한다는 송어직소, 4보는 기와집 모양의 제집바위, 5보는 삼석봉, 6보는 금강송 그리고 7보는 성황당이다.

제1보인 구룡령옛길은 경치가 뛰어난 명승일 뿐 아니라 상품 교역로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금강송 자생지라는 생태계적 의미도 크고,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한 현장도 보존되어

있어 문화적 가치가 크다 하겠다.



〈그림 8〉 구룡령 옛길과 구룡령 56번국도



양양에서 영서를 잇는

## 백두대간의 영(嶺)

발행일 : 2024년 12월

발 행 : 양양문화원

주 소 :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14-5

전 화 : 033) 671-8762

## 속초시

## 강현면

## 서면

## 양양읍

## 인제군

### 2경 대청봉

### 3경 오색령

### 4경 오색 주전골

## 범례

- |           |             |
|-----------|-------------|
| ● 공원 / 휴양 | ● 체험마을      |
| ● 야영장     | ● 휴게소       |
| ● 전망대     | ● 관광안내소     |
| ● 산       | ● 숙박시설      |
| ● 병원      | ● 박물관 / 미술관 |
| ● 역사건축물   | ● 폭포 / 계곡   |
| ● 학교      | ● 항구        |
| ● 골프      | ● 서핑해변      |
| ● 행정기관    | ● 기타        |
| ● 사찰      | ● 고속도로      |
| ● 해수욕장    | ● 국도        |
|           | ● 지방도       |





